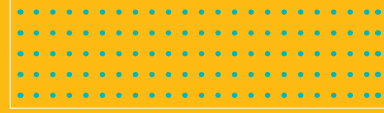


05

with IBK  
IBK MAGAZINE

오늘도 고마워!

2023.  
May  
vol.453



05 : May

# 오늘도 고마워!

덕분에 웃을 수 있어

‘고마워’라는 말은 참 마법 같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따스함이 행간에 녹아 있으니깐요.  
감사의 달, 5월입니다. 덕분에 웃을 수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일이 **나쁘다**  
고 **느끼고**

가치 있는 이유는

이들의 **평생** 덕분에입니다.

IBK가  
존재하는  
이유

# Contents

2023.  
May  
vol.453

오늘도  
고마워!

## 08

에세이  
오늘도 고마워!

## 12

슬기로운 생각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 18

IBK가 만난다  
역사의 고마움은 좋은 질문에 있다  
큰★별쌤 최태성

## 24

IBK NOW  
항상 고맙습니다!  
IBK인의 멘토, 멘티는?

## 30

IBK업글인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연주를 위해 피아노를 치다  
자금부 신현진 과정

## 38

IBK맛집노트 ㉔  
제주도편

## 44

발길 닿는 길(국내편)  
속세 넘어 왕이 거닐던 길을 따라서  
보은 오리숲길과 세조길

## 50

발길 닿는 길(해외편)  
아드리아해의 중세 성벽 길을 걷다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 56

IBK산 ㉔  
연분홍 진달래의 노래, 비슬산  
때로는 별이 좋아서, 오늘은 구름이 좋아서

## 66

IBK버킷리스트  
풍선을 타고 날아볼까  
멀리 화살을 쏘아볼까

## 72

IBK핸드메이드  
꽃, 설렘, 감사의 마음을 담다!  
서귀포지점

## 78

카툰으로 보는 역사  
우린 모두는 어린이였다  
소파의 어린이 찬미

## 80

요즘, 시선  
응답하라 K-전통주  
젊어진 전통주에 반하다

## 84

IBK히어로  
기업의 마중물이 되고 직원들의 소통과 배려를 통해  
명품지점으로 나아가다, 총주지점

## 94

히든챔피언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탱크의 선두 주자가 되다, ㉔성지기공

## 100

창공, 날다  
성공의 미래를 앞둔 IBK창공 기업  
㉔리체, ㉔집소퍼, ㉔파워플레이어, ㉔안티그래비티

## 104

사소한 꿀팁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 110

우리말 한 걸음  
고마움을 담은 청첩장에도  
올바른 우리말과 함께

## 110

HOT ISSUE  
취임 100일,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  
IBK기업은행장 김성태

## 112

IBK뉴스  
이달의 뉴스

## 114

이달의 이벤트  
이달의 N행시 / 이달의 인증샷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2023년 5월 2일 발행인 은행장 김성태 편집인 조민정, 김태경 편집위원 이명환, 정누리 발행처 홍보부 편집디자인 더에이치(주)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마워,  
이 말은 참 부드럽고  
녹진하며 너그럽다.



한 호흡에 쏟아내는 이 찰진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도, 나도, 우리  
모두를 무장 해제시킨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가장 쉽고  
빠르며 귀중한 말, 바로 '고마워'라는 3음절에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에 '고맙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얼마나 하고 살아갈까? 때론 부끄러워서, 너무 친해서,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라서 등의 자기최면은 소중한 감사와 귀중한 관계를  
허무하게 밀어내는 '하얀코끼리'다. 애먼 데서 찾는 정서의 허기도  
감정소비라는 피로를 낳게 한다.



'고마워'에는  
큰 힘이 있다.

밝은 미소와 함께 고마운 마음을  
늘 전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만들어 가는 것,  
나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바람직할 일이다.  
5월은 사랑과 고마움을 되새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다행이다.



# 안녕하세요



# Thank You

# 오늘도 고맙습니다



만남은 감사의 다른 이름이다.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부모와 형제가, 친구와 동료와 이웃이  
무사하다는 뜻이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다. 만남은 서로를 위해 마음을 크게 내는 순간이기도 하다.  
서운했던 감정은 잠시 덮고 서로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서려 애쓰는 고마운 순간이다.  
그런 그들에게 반갑게 인사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저 빙긋이 웃으며 이 한마디면 족하다. “안녕하세요?”라고.

✎ 김유진

## 나는 누군가를 온몸으로 반겨준 적이 있었던가

요즘 실천하는 루틴이 하나 있다. 잠자기 전에 기분 나쁘고 속상했던 마음을 다 지우는 일이다. 나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이나 타인을 향한 서운함을 적당히(?) 잠재우고 그 시간까지 끌고 다닌 부정적인 감정을 없앤 뒤에 웃는 얼굴로 잠든다. 긴긴밤을 지나 아침이 되면, 눈을 뜨자마자 주섬주섬 ‘감사한 일’도 생각해본다. 나로서는 좀 낮간지러운 일이다. 유난히 피곤해 몽그적거리는 아침은 ‘감사할 게 뭐더라.’ 하고 속으로 너스레를 떨기도 하고, 화장실이 급해서 후다닥 일어나는 날도 있다. 눈을 뜨자마자 해보는 ‘감사 인사’는 그 마음을 겨우 훑내내는 정도이다. 사실 진짜 감사는 방문을 열고 나간 뒤부터 시작된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 온 아기 고양이 꽃님이 덕분이다. 꽃님은 방문 앞에서 잠을 자다가 제 주인이 나오면 몸을 발라당 누워 배를 보이며 아침 인사를 한다. 내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꽃님아, 잘 잤어?” 하면서 턱과 뺨을 간질이면 꽃님이 눈을 감고 웃는다. 매일 아침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몸짓으로 인사하는 꽃님에게 고맙다. 나는 지금껏 누군가를 온몸으로 반겨준 적이 있었던가. 그 고마움은 선배 집사인 제부가 해준 말 때문이기도 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애네들은 그 한 가지만으로 제 할 일 다한 거예요.” 매일 아침 꽃님과 만날 때 그 말이 떠오르면, 조금 전에 게슴츠레한 눈으로 억지로 감사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행복감에 빠져 아무 말이나 늘어놓는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를 낮은 목소리가 내 안에서 넘쳐 나온다. “꽃님이, 공모닝! 어이구 어이궁 이빠라, 우리 꽃님잉. 안녕? 잘 잘찌영? 아이궁 아이궁 좋아라. 좋은 아침이야.” 연인에게 속삭이듯 허 짧은 소리로, 말끝에 이음(o)자를 잔뜩 붙여가며, 엄마가 아이에게 하듯 말과 말 사이에 리듬을 넣어 평소보다 긴 아침 인사를 한다. 누가 보면 참 유난스러운 아침 인사도 다 있다, 할 것이나 하루 중에 맞는 첫 만남의 환대는 조금 과해도 좋지 않을까?



**만남은 서로의 무사와 너그러움에서 온다**

이른 아침 꽃님이와의 반가운 만남을 시작으로, 하루 종일 ‘만나고 인사하는’ 일이 이어진다. 아침 강의가 있는 날이면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침에 분주하셨을 텐데 그것들 다 정리하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잘 오셨어요. 우리 이렇게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는 동안 내 말투가 종교인의 설교로 들리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말로 애써 바꾸지 않는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이 진심으로 기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 일찍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이상이 발견되어 강의에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길에 접촉 사고가 나서 못 오는 일도 있다. 잘 나오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빠지면 무슨 사정이 생긴 게 틀림없다. 그러니 두셋이든, 열이든, 같은 시간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일상을 꼼짝 못 하게 할 심각한 문제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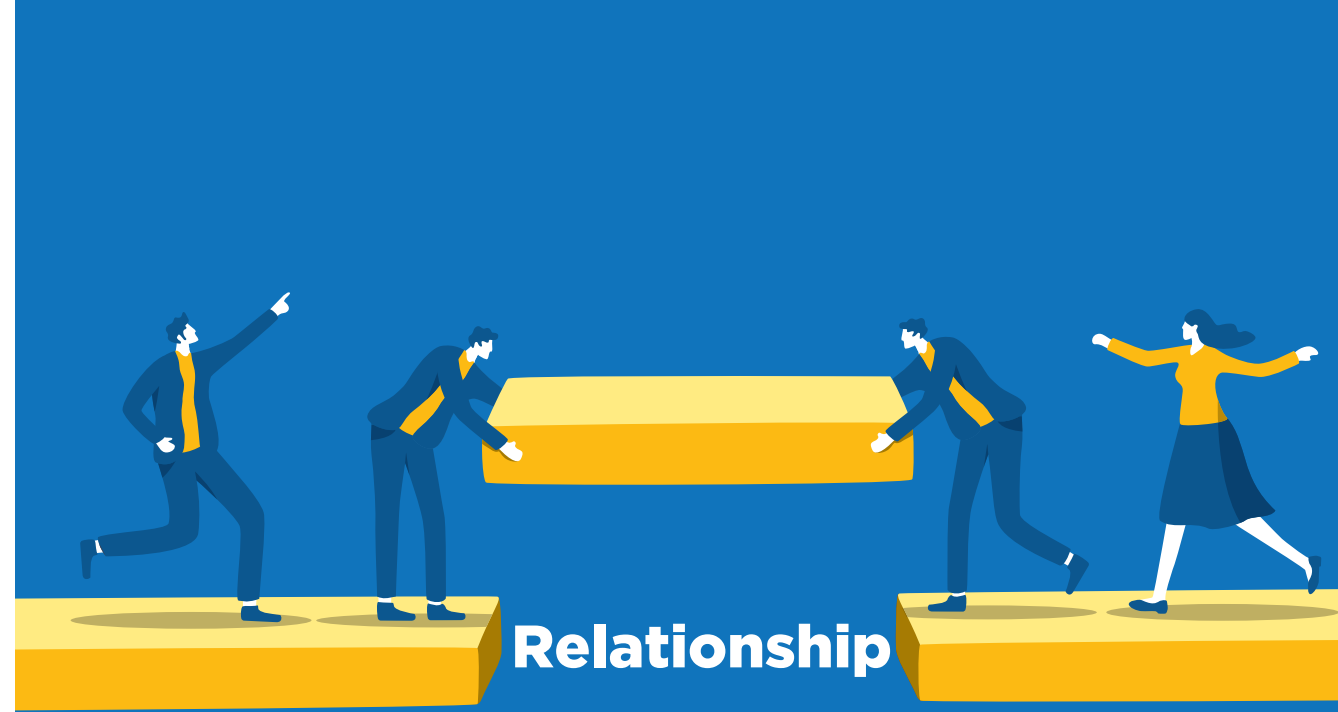
해결하고 치유 중인 ‘무사’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 그 덕분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

가족과 만나는 자리는 어떤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 좋을 수는 없다. 사랑으로 가득한 관계가 아니라서 아쉽다는 사람, 가족 중에 이 사람도 조금, 저 사람도 조금 불편하다는 이도 있다.

나도 가족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 그를 만나러 갈 때면 싫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마음 단속을 더 했다. 관계가 한참 좋지 않을 때는 심리서를 두세 권 읽고, 심리 관련 영상을 수십 개쯤 보고 나서 그를 만났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둘의 신경전은 늘 팽팽했다. 한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노력에 가려졌던 그의 노력이 보이는 계기가 있었다. 눈을 한번 크게 떠보니 그도 그 나름대로 우리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전히 살갑게 지내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는 그와의 만남에 부담이 없어졌다. 내 좁은 마음으로는 장족의 발전이다.



인간관계에서 서운함이나 약간의 미움은 언제나 기본값이다. 그런데도 얼굴을 보고 함께 식사하며 잠시 웃는 것은 당신의 너그러움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관계에서 서운함이나 약간의 미움은 언제나 기본값이다. 그런데도 얼굴을 보고 함께 식사하며 잠시 웃는 것은 당신의 너그러움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상대의 너그러운 마음도 힘껏 작동하는 중이다. 평생 우리는 서로의 너그러움으로 만남을 이어간다. 서로를 향한 ‘너그러움’ 덕분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이다.

만남과 헤어짐이 평생에 걸쳐 반복되는 관계도 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로, 특히 친구, 동료, 지인 관계는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우리 곁을 수없이 스쳐 지나간다.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가는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갈등 없이 관계가 끊어지고 사소한 일로 데면데면해진다. 잘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가 사라진다는 느낌은 여간해서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때마다 당황스럽고 서운해진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가겠어.’ 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얼마 전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멀어진 일이 있었다. 적잖은 충격으로 속을 끓이던 어느 날, 하도 답답해서 선배에게 털어놓았다. 선배는 그게 무슨 고민이냐는 듯 말했다.

“그 관계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힘든 거 아니야? 관계란 게 그러다가도 다시 이어지는 거고 나는 몇 년간 안 봤던 사람도 언제든지 다시 연락할 수 있어.”

그랬다. 나는 좋았던 관계가 소원해지면 늘 ‘끝’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나 선배는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설사 관계가 영영 끝난다고 해도 선배처럼 마음먹으면 모든 관계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때가 되면 관계에 부활이 찾아온다. 모든 관계가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선배는 언제나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지금 여기’의 만남에 감사하며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



# Positive

그 자체로 감사한 시간이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동료와 이웃은 감사 그 자체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 존재와의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5월은 만남이 잦은 달이다. 가족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책임과 의무로만 느껴져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다. 혹시 그 만남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감사를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만남만으로 충분하다. 힘이 조금 남아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반갑게 인사해보는 것은 어떨까? 반갑게 인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의 존재와 감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필자가 이른 아침 아기 고양이와 하듯, 요란스러운 인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저 빙긋이 웃으며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면 족하다.

‘안녕’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는 뜻이다. 행복의 시작과 끝이기도 하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나는 이 지면을 통해 만났다.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준 당신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에도 매일 웃으며 인사하시길.

**김유진** 편집자·작가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20년간 도서를 기획 및 편집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과 학교에서 글쓰기와 출판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쓴 책으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매일 하면 좋은 생각》, 《나를 가장 나답게》 등이 있다.

## 만남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게 한다

얼마 전 한 방송에 이지선 씨가 출연했다. 그녀는 20여 년 전에 일어난 자동차 사고로 전신 55%의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지선 씨가 탄 차를 들이받은 사람은 만취 상태의 운전자였다. 그녀는 그 사고로 평생 그 운전자를 향해 분노하고 죄를 물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런 그녀가 말했다. “저는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바꾸었어요. 제가 언제까지 피해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녀가 바꾼 것은 단순히 단어 하나가 아니었다. 불행한 사고와 헤어져 피해자로서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녀가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서 늘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눈빛” 덕분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은 살아가는 데 초인간적인 힘을 내주며, 이 사랑의 만남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 만남만으로 감사합니다

만남은 감사의 다른 이름이다.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부모와 형제가, 친구와 동료와 이웃이 무사하다는 뜻이니 이보다 고마운 일은 없다. 만남은 서로를 위해 마음을 크게 내는 순간이기도 하다. 상대의 크고 작은 허물을 덮고 마음속에 솟아있던 미움의 흑을 줄여, 서로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서려 애쓰는 고마운 시간이다. 모든 만남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 다시 만나지 못해도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동료와 이웃은 감사 그 자체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역사의  
고마움은

좋은  
질문에 있다

큰 ★ 별샘 최태성

바쁘다. 최근 그의 삶을 압축하고 에두른 표현이다.

고정 방송출연만 3개, 전국 지자체와 박물관에서 쏟아지는 강연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그럼에도 그는 넘치는 에너지, 균형 잡힌 관점,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역사가 암기 과목이 아닌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강조한다. 왜일까. 복기해보자.

글 박성일 사진 이대원





**Q. 방송, 강연, 출판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요. 꼭꼭 눌러 담은 요즘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KBS 1TV <역사저널 그날>, tvN STORY <별거벗은한국사>, 채널S <다시갈지도> 등의 방송에 고정출연 중입니다. 전국 지자체와 박물관 같은 곳에서도 강연과 촬영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요즘 너무 바쁘네요. 진짜 이렇게 바빠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바쁩니다. 아마 이게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몸이 다쳤을 거예요. 근데 일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저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힘든 걸 잘 모르나 봐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저한테는 취미이거든요. 좋아하는 일이 취미이니 재미있을 수밖에요.

**Q. 딱딱한 역사가 아닌 웃음과 교훈이 가득한 감동의 강의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EBS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EBS 방송만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소중한 프로그램이지만 동시에 체력적·경제적으로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EBS는 제가 출발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잘나간다고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게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EBS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언젠가 저를 대신할 새로운 선생님도 오시겠죠. 학생들을 위해서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잘릴 때까지요(웃음).

**Q. 사실 역사의 뒷담화는 훌륭한 스토리텔링감입니다. 특히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역사, 왜 배워야 할까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가끔 백미러를 보잖아요. 백미러를 보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의 시간을 둘러보며 내가 앞으로 가는 이 시간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또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자본주의 비교사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감을 느끼며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 역사 속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계속 학습하고 확인하면서 자신의 내성을 기르는 거죠. 이러한 변화와 비교, 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채 중심을 잡고 뚜벅뚜벅 길을 갈 수 있는 힘, 저는 그게 역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역사 공부 참 어렵습니다. 의미만 좇다 보면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재미만 추구하거나 수박 겉핥기 식입니다. 역사의 깊이와 재미,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걸어온 흔적들이잖아요. 그 흔적들을 찾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동질화가 될 때 거기에 몰입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

가 되는 거니까요. 그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사실들도 알게 되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도 찾게 되는 거죠. 역사 속 자신의 닮은꼴을 찾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21년간 현직 교사로서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이 시대 ‘선생님’의 참 의미,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先生)’이라고 하는 글자는 ‘먼저 앞 시대를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말 그대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학생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길 안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제자들한테 안내해주고 있는 이 길이 도대체 올바른 길인지, 이 시대에 부합한 것인지, 과연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건지 등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몸으로, 언어로, 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 고마운 인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시간 속에서 그런 개념들을 찾는 것 같아요. 나와 동 시간에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저는 역사를 한 사람이니까 수평적 시간 말고 수직적 시간 속에서 감사와 고마움의 의미를 찾았으면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을 수직적 시간으로 올라가다 보면 분명 출발점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누군가의 출발’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려 말 문익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중국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우리나라의 의복 문화는 물론 상거래 관행에 큰 변화를 일으키죠. 물론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의 노력은 우리에게 종합선물 같은 부드러움과 따스함을 선물해줬습니다. 세종대왕도 빼놓을 수 없는 고마운 분입니다. 훈민정음 역시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소중한 보물이죠. 우리가 수직적 시간 속에서 그들과 연결되는 순간 최초의 패배자, 그들이 가졌을 고독을 떠올리다 보면 내 일상이 참 많은 사람의 고마운 시간 속에서 이뤄지고 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는 자연스레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수직적 시간의 관계 속 감사와 고마움의 행렬입니다.



**Q. 역사 속 롤모델과 현실 속 워너비, 그 동경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너무 감사한 사람은 저한테 좋은 질문을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회영 선생을 포함한 6형제는 당시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남양주부터 걸어서 동대문에 들어와야 비로소 이분들의 땅이 끝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죠.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엄청난 재산을 일제강점기 경술국치 때 다 파세요. 그 돈으로 만주 가서 땅 사고, 학교 짓고, 군인들을 무상으로 교육하는 데 다 쓰죠. 정작 본인들은 돈이 없어 옆집에 옥수수를 구하러 다닐 정도로 궁핍했다고 해요. 범인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들은 삶을 좇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우당 선생처럼 ‘나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끝은 정말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좋은 질문을 간직할 수 있도록 깨우쳐 준 우당 선생이 저에게는 ‘역사의 선물’입니다. 저 역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큰★별샘이 IBK 매거진 독자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낙관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일희일비하지 않거든요. 결국 다 잘 되어 있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낙관적인 희망의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결국 좋은 곳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IBK인의 멘토, 멘티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다 보면 언제나 선생님이 있기 마련이다.  
때로는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 자녀가 삶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따라와주며 멘티를 자칭하기도 한다.  
IBK인들의 멘토, 멘티는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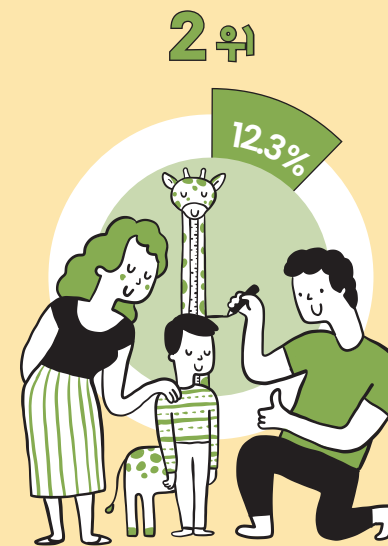
정리 편집실

IBK인의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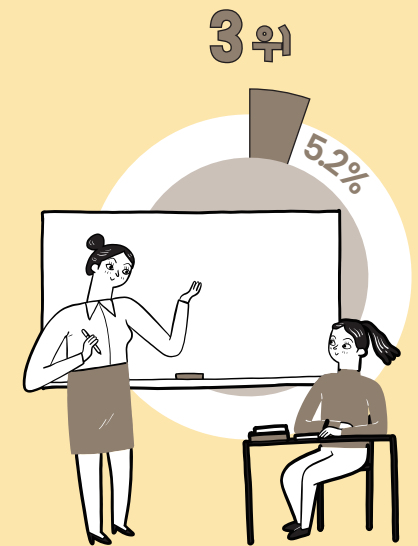
## 직장 상사·동료

IBK인의 멘토, 멘티의 대부분은 직장 내 상사와 동료들이었다. 조사를 위해 진행된 앙케트는 직장 상사와 동료를 향한 감사의 메시지로 가득 해졌다. 마치 감사 편지를 전하는 우체통이 된 것처럼...



## 가족

역시 최고의 멘티는 항상 곁에 있는 가족이 아닐까? 아내나 남편이 직장 생활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멘티가 되기도 한다. 직장 생활의 멘토였던 동료가 가족이 되는 로맨틱한 사례도 있었다.



## 학창시절 선생님

IBK인들은 아직 미숙했던 학창시절 멘토가 되어준 선생님도 잊지 않았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둔 시절, 제일 의지가 많이 되는 건 역시 담임 선생님이다. 10년, 20년이 흐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은사님들의 이야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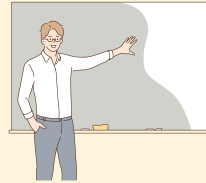
# IBK인의 멘토·멘티

항상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고 응원해주시고, 어떤 보고서를 써서 드려도 다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던, 밤낮 없이 제게 일하는 법을 알려주셨던 정우진 팀장님! 감사합니다.

삼성동지점 강성희

가장 기억에 남는 멘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양종식 선생님입니다. 취업과 대학 진학의 기로에 서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을 시기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함께 고민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기 위해 힘써주셨고, 결국 선생님의 조언과 저의 노력으로 기업은행에 입사해 1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삼승테크노지점 이혜민



대치역지점 홍정실 지점장님이 저의 멘토입니다. 작년엔 할머니의 잦은 응급실 방문과 병원 입·퇴원으로 심신이 지쳐있었는데요. 지점장님께서 퇴근길에 병원도 데려다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해주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힘들었던 2022년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삼중앙지점 김민정

인생의 선배이자 입행 동기인 김추경 형과 박현준 형이 멘토입니다. 제가 힘들 때 함께해주고, 함께 여행도 갔던 두 형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진은 입행 때 비상을 꿈꾸면서 함께 찍었던 것입니다.

학장동지점 최성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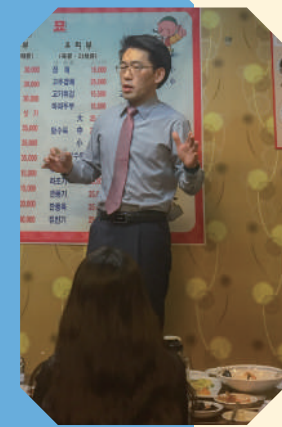
제 멘토는 인재개발부 연수운영팀 이상현 차장입니다. 제가 부서에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본점 근무가 처음인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고마운 후배입니다. 이상현 차장의 배려 덕분에 근무지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이상현 차장처럼 동료들을 배려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아, 내 내 평생의 멘토다!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김동엽



제 마음속 영원한 멘토 정의상 지점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업무와 인간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고민들, 그리고 항상 유익했던 지점장님과의 역사저석 토크는 늘 잊지 못합니다. 오늘도 명동 할머니국수를 지나치면서 지점장님을 생각합니다. 늘 나침반이 되어주신 지점장님 보고 싶습니다.

투자상품부 김응백



with IBK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같은 지점에서 만난 입행 동기인 동생이 생각나네요. 애기 엄마가 된 돌이서 의지하고 업무적으로도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가족 이야기도 들어주고 공감해준 고마운 동생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달성공단지점 이정은



저의 어설플 책임자 1년 차 시절, 함께 울고 웃으며 지점 생활을 했던 저의 팀원들이 저의 멘토입니다. 함께 흥분 놀라웠던 게 잊그제 같은데 이제는 모두 누군가의 선배가 되어 다른 후배들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에 뿌듯합니다! 우리 명품 광명 관련 지원 소란 수현 현정 파이팅!

검사부 김재정



경력단절 여성으로 시간제 직원으로 들어와서 힘든 일도 많았고 적응하는 데 힘든 일도 많았지만 7기 동기들이 있어서 많이 위로받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니 같고, 친구 같고, 때론 선배 같은 동기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선 제 7기 파이팅입니다!!

프로세스혁신부 안미라

멘토로서 가장 큰 기쁨은 멘티가 충분히 한 사람 뭉을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멘토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나의 멘티 황다솜 대리님.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

여신심사부 이상일



양윤영 대리님, 입행원 때 첫인상은 제일 무서웠지만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가면 제일 먼저 일 제쳐두고 알려주고 시재 들렸는데 10시까지 남아서 같이 찾아준 유일한 대리님. 굶은일 다 맡아 해도 싫은 티 안 내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과도 많이 내는 모습들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1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고객 응대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게 만드는 은행생활 멘토입니다.

군포지점 최지연

신입행원으로 같은 지점에서 만났던 제 애내는 단말번호를 알려주던 신입행원의 멘토였으며, 제 애내가 되어준 지금은 삶의 행복을 가르쳐 주는 저의 멘토입니다.

검사부 서영대



저의 고마운 멘토는 첨단지점 천순례 과장님입니다. 시간선택제로 적지 않은 나이에 입사해 업무 실수가 생겨 고객 민원으로 기죽어 있을 때 업무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토닥여주시면서도 업무 관련 문서를 출력해서 업무도 꼼꼼히 알려주시고 어려운 은행 생활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남공단지점 이신영



2023 May



디지털기획부 김용주 과장입니다. 초임지를 광양지점으로 발령받아서 숙소 생활을 시작했는데 김용주 과장님 덕분에 무사히 초임지 생활을 마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업무분장 등에서 저를 배려하기 위해 매 인사시즌마다 지점장님과 저에 대해 대화를 나눠주신 그 마음 씬씀이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광산지점 이현호



**신입행원 때 옆자리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셨던 김초롱 대리님 감사합니다!**  
**저의 시재가 안 맞았을 때 사비로 채워주시고, 졸업선물까지 챙겨주셨던 따듯한 대리님이세요.**  
기업고객부 소상공인고객팀 최효진

**이진명 팀장님이 제 멘토입니다. 최근에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참 선배님! 늘 감사드립니다!**  
양재동지점 한완수



초임지에서 신입이었던 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셨던 저의 첫 사수 유문선 차장님! 은행 생활이 힘들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먼저 알아주시며 챙겨주셨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행 생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도당중앙지점 김유정



**사진에 있는 분이 저의 멘토입니다. 작년 여신 책임자 시험 공부할 때 본인의 시간을 알아해서 책을 정독하고 중요한 부분을 강의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처럼 쉽고 전문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광산지점 위중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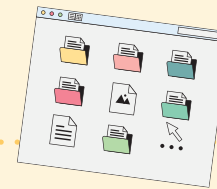
**제 멘토는 목포지점 김경아 부지점장님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 사먹으라고 제 계좌로 10만원 보내주셨어요. 다시 입행해서 그 맘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지점 이성진

**신입행원으로 들어와서 실수 많이 했는데 차분하게 다시 알려주시고 격려 해주신 이상민 대리님 정말 감사해요!**  
개인고객부 송유정



**인재개발부 박현진 차장님입니다.**  
신입행원 시절, 응암동에서 개인팀 책임자로 박현진 차장님을 처음 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막 스무살이 되었던 때라 모르는 것도 많았고, 알게 모르게 실수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잘했던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힘을 얻고 열심히 은행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저를 성장시키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산주엽지점 김시은

**업무 고민도 인생 고민도 많이 들어주신 마장동 박신영 차장님!**  
**초임지 시절 차장님이 메신저로 알려주신 꿀팁들은 아직도 제 업무매뉴얼 파일에 적혀있습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구로삼성IT지점 추화정



**허종하 과장! 입사 동기이자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친구입니다!**  
서교동지점 장상민



**육아에 지치고, 가끔 일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많은데, 집에서 자증내도 잘 받아주는 내 남편! 저의 고마운 멘토입니다!**  
과천지점 이양희



저의 첫 멘티였던 IT금융개발부 송민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초임지에서 첫 후배로 민서를 만났을 때 한결같이 잘 따라주고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한 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라 정도 많이 듣고 입학 초부터 비슷한 시기에 같이 결혼 준비하자고 했던 민서와 실제로 결혼 준비시기도 비슷해 저의 결혼식날 부케도 받았습니디!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네요!  
개인고객카드사업그룹 디지털마케팅cell 이윤경



**입행하고 첫 근무처입니다! 아마 퇴사까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 멘토는 저와 같이 출력 업무를 해주시는 정소희 대리님과 이영주 대리님입니다. 일을 배워도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았는데, 여쭙보러 가면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가르쳐주시고, 다독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실수투성이지만 동생처럼 아껴주시고 챙겨주십니다! 사회생활 8년 차에 사무실 근무는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지만 언니들을 만난 게 정말 행운입니다!**  
여신심사센터 정주영

**제 멘티는 천안중앙지점 김혜민 대리입니다. 초임 책임자, 초임 기업고객팀 대리로 만나 서로 서툴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항상 밝은 모습과 열정적인 업무태도로 임해줘서 무척 고마웠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천안중앙지점 황재용



**진심으로 후배들을 사랑하는 검사부 김재정 차장님이 멘토입니다! 매일 대기고객이 30명이었던 바쁜 지점임에도 저희를 잘 이끌어주셔서 지금도 같이 여행가는 친친이 되었습니다. 차장님 덕분에 IBK생활이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역삼남지점 류지원



남중지역본부 이상은 대리, 초임저 가족 같았던 범계역지점에서 정성 어린 손길로 손수 수신업무 문제를 만들어주시던 직원분들 감사했습니다. 막막했는데 뒤에서 어머어마한 힌트를 주셔서 큰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5년도 넘게 지냈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목동WM센터 김도평

**타 행 동기였는데 기업은행으로 같이 입행한 뼈속부터 동기 김효선 언니! 내가 아끼고 애정합니다~! 오랫동안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졌요. 사진은 기업은행에 IP전화 도입되고 나서 신난 우리!**

여의도IFC지점 강민경



0125지점에서 처음 만난 김선영 대리님! 맥주도 못 마시던 20살도 안 된 나의 동생 선영이가 어느덧 그때 저의 나이가 되었네요. 기업은행이 맺어준 인연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동생이 되었어요! 선영아 고맙고 사랑해♥

방배중앙지점 김진희



년  
최고야!!



김진희 팀장님! 첫인상은 그저 그랬는데 이제는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저에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본인 일에 진심을 다하는 우리 멋진 멘토 김진희 팀장님! 고민이 있을 때나 슬플 때, 힘들 때 언제나 옆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본인 일처럼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도와주고, 저에게 많은 애정을 쏟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인생 선배로서 먼저 배우고 느낀 걸 저에게 알려주어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두 많이 컸으니까 언니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동생이 될게요. 평생 멘토 김진희 나랑 오래오래 행복하자!

카드마케팅부 김선영

이동운 부장님, 업무는 물론이고 업무를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 등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년이 지나 저도 차장이 되었는데 그때의 차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든든한 직원이 되어주고 싶네요.

독산역지점 최정연



**맑고 싶은 사람이신 박민우 팀장님! 힘든 신입시절 항상 곁에서 용기를 심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술은 조금만 드시고, 건강하게 같이 멋진 은행 생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대로지점 고동욱



신입행원 시절 옆자리에서 저를 키워준 장수경 대리님 감사합니다. 신입이 옆에서 같이 일한다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은행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언니처럼 정답게 친근하게 알려주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 매일 깨달아요! 수경언니 알라뷰♥

디지털기획부 한숙경



신당역지점 박영미 부지점장님! 3년간량 쉬고 복직한 우리 가게팀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고 영업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엄마처럼 너무 따뜻한 선배님이십니다. 늘 감사해요 팀장님!

우리 면역공방에서 또 만나요! 남대문시장지점 진달래



신입행원 시절 첫 지점에서 만났던 박슬아 과장님! 업무적, 업무외적으로도 완벽한 과장님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첫 지점에서 과장님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은행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송탄지점 김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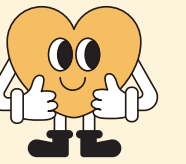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는 고마운 멘토는 저의 첫 멘토셨던 권두나 차장님입니다. 3년 전 신입행원으로 첫 출근한 날 꽃과 함께 반겨주시는 차장님, 좋은 일 있을 때 항상 먼저 축하해주시고, 업무에 치여 힘들어할 땐 먼저 도와주시고,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 땐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고, 지나고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남동공단WM센터 임송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산량정지점 김은주 팀장님! 바쁜 지점에서 업무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문서나 규정을 직접 출력해주며 정확한 업무처리 방법을 알려주시고, 서류를 받는 목적이거나 보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시며 바닥이었던 자신감을 올려주셨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발령났을 때도 저금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지금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천안불당지점 원윤경

사랑이 가득하신 양평동 이은정 팀장님. 부천지점에 있을 때 팀장님 안 좋아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늘 직원들 위해서 업무도 도와주시고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은행 생활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벌써 6년이 넘게 이어온 이 인연, 앞으로도 팀장님 평생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IT금융개발부 임윤지





#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연주를 위해

# 피아노를 치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금부  
신현진 과장

피아노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마음속 동경을 현실로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안다. 하지만 때로는 동경이 현실이 되기도 한다. 피아노를 치면서 존재를 느끼고 행복을 얻는다는 자금부 신현진 과장을 만났다.

글 한울 사진 김성재 영상 윤승현





**피아노, 어른이 돼 다시 시작하다!**

저녁 어스름이 젖어 든 신촌의 한 스튜디오.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조명 빛을 받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자리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힐 때쯤 신현진 과장이 문을 열고 스튜디오로 들어섰다. 악보집 한 권을 쥐고 있었다.

“촬영 전 잠시 손을 좀 풀어도 될까요?”

신현진 과장이 미소를 띠며 물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어깨에 힘을 빼고 마음을 가다듬는 듯 보였다.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고 잠시 호흡까지 가다듬는가 싶더니 이내 맑고 청량한 피아노 소리가 스튜디오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의 열 손가락이 춤을 추듯 건반 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다. 그 순간,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스태프들은 그의 모습에 매료돼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다.

신현진 과장은 ‘Stella Serenade’와 ‘Chopin Etude’를 연이어 연주했고, 스태프들은 박수로 응답했다. 그는 “긴장이 좀 되네요!”라고 말하며 수줍게 미소지었다.

“8개월 전부터 ‘피아노 선비(piano\_seonbi)’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주한 피아노 영상을 업로드하고, 또 클래식 음악을 추천하거나 공연 감상 후기를 올리고 있어요. 제 계정을 팔로워 하는 동료들이 추천해주어서 이런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피아노 실력은 몰라도 피아노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진 과장이 피아노를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일곱 살 무렵이다. 여느 아이들처럼, 그도 자신의 의지보다 엄마의 의지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체르니 30’을 끝으로 학원을 그만뒀다. 이제는 그의 머릿속에서도 희미해진 기억이다.

“행원이 된 지 3년 차 즈음 취미 하나쯤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찼던 피아노가 떠오르더군요. 집에 디지털 피아노가 있어서 시간이 나면 치곤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배워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각 근처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등록하고 일 년 정도 치다가 사정상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다시 시작했죠. 이제 피아노는 제 삶에서 뺄 수 없는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콩쿠르를 준비했던 노력의 시간**

피아노를 시작하고 신현진 과장은 일반인 콩쿠르에 출전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콩쿠르를 준비하기 위해 연습에 매달렸던 노력의 시간은 피아노와 더욱 친해지고 피아노를 더욱 사랑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학원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선생님이 ‘일반인 콩쿠르에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는데, 덤석 한다고 했죠(웃음). 콩쿠르에 나가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두 달 정도 하루에 두세 시간씩 ‘Chopin Etude’를 연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어요.”





콩쿠르에서 심사자들을 앞에 두고 연주하기란 쉽지 않았다. 난생처음 해보는 경험에 긴장을 했고, 그러다 연주를 틀렸고, 심사자들 앞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그러나 '진정한 노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는 여덟 명의 참가자 중 3등을 하며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수상보다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다. 콩쿠르 이후 귀가 열리며 피아노 소리가 더욱 자세히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피아노에 더욱 재미가 붙었다.

“어느새 행원 10년 차가 되어갑니다. 직장에서 10년 쯤 되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피아노는 치면 칠수록 내 실력이 느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피아노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행복을 얻는 것 같습니다.”



### 삶의 활력소인 피아노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하루 중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육아에 힘써야 하는 신현진 과장에게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시간은 넉넉지 않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최대한 시간을 알차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면서 연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피아노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을 때 신현진 과장도 막막했다. 하지만 노력하고 연습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뿐, 그러한 순간을 이겨내면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피아노는 바이올린이나 플룻 등의 다른 악기에 비해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른 악기들은 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음악을 취미로 하고 싶다면 피아노는 정말 좋은 악기라고 생각해요. 현재 피아노를 치고 있는 분들에게는 슈만의 ‘어린이 정경’이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어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참 예쁜 곡이어서 즐겁게 칠 수 있습니다.”

신현진 과장은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자신 곁을 흘러가는 시간을 느낀다. 마치 명상을 하듯이, 그는 피아노 앞에서 몸과 마음을 한껏 열어 둔다. 그리고 자신이 연주하는 소리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낀다.

“3년 전 다시 피아노를 시작할 때, 10년 후에는 독주회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800명을 조금 넘겼는데요. 팔로워 수 1만 명도 이루고 싶어요. 피아노와 클래식 음악을 매개로 더 많은 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신현진 과장이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연주가 시작되었다. 피아노 선율이 봄밤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에 환한 행복의 미소가 어렸다.



## IBK 업글인이 알려주는 꿀팁

①

###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 무엇이든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서 연습하면 금방 지치게 된다. 피아노도 마찬가지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는 게 지치지 않고 오래 피아노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 음악 전체에 집중하기

음악은 순간순간의 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울림이 이어져 만들어진다. 피아노 건반을 쳤을 때 나는 소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을 잘 들으면서 연습하면 음악이 더욱 재미있고 실력도 빨리 향상할 수 있다.

③

### 디지털 피아노로 연습하기

요즘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옆집으로 새는 피아노 소리가 걱정된다면 디지털 피아노로 연습하는 게 가장 좋다. 늦은 밤에도 헤드폰을 끼고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피아노를 칠 수 있다.



# 우리가 만드는 맛있는 지도

## 제주도편



최고의 힐링 여행지 제주도에 맛집도 많다.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맛집들을 선정했다. 우리가 직접  
선정한 맛집들을 알아보자.

클 편집실



### 제주도 은갈치의 명가 갈치왕 중문점

갈치조림은 가시가 없고, 구이도  
먹기 좋게 발라주는 갈치 맛집!

- △ 가시없는 갈치조림 15,000원
- 📍 일주서로 1146
- ☎ 064-739-9333

### 비리지 않은 고등어회 미영이네식당

회 안 먹는 사람도  
다 먹고 나온다는  
제대로 된 고등어횃집.

- △ 고등어회 小 + 탕 60,000원
- 📍 하모항구로 42
- ☎ 064-792-0077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떡도리세상)



### 제주 흑돼지 특수부위 전문점 빨살집 제주본점

천겹살, 비단살, 눈썹살, 빨살 등  
흑돼지 특수부위라면 여기서 맛보자.

- △ 모듬스페셜 2인 45,000원
- 📍 중정로91번길 41
- ☎ 064-763-6860

전복이 이렇게 맛있었나?

### 제주산채향

전복칼국수와 전복물회, 전복죽까지. 전복  
요리로는 어디 내놔도 자신 있다는 맛집.

- △ 전복칼국수 11,000원
- 📍 사계남로84번길 6
- ☎ 064-794-7177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gone2)



2023 May



### 불맛 나는 낙지볶음 동남식당

불향이 끝내주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시원한 홍합탕이 일품!

- △ 낙지볶음 11,000원
- 📍 고성오조로 86
- ☎ 064-782-0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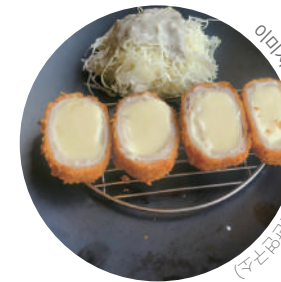
### 갈치요리의 춘추전국시대 보일식당

도민들도 즐겨 찾는 로컬갈치맛집으로,  
갈치조림부터 갈치국까지 끝내준다.

- △ 갈치조림 2인 40,000원
- 📍 보목포로 45
- ☎ 064-732-0840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반취한달)



### 전국구 유명 맛집 연돈

설명해 무엇하랴. 제주도  
여행분을 일으킨 골목식당  
연돈이 바로 여기서.

- △ 치즈가스 13,000원
- 📍 일주서로 968-10
- ☎ 0507-1386-7060

### 제주도 왔으면 고갈딱해야지! 제주어물전

제주도 왔으면 맛봐야 하는 고등어회, 제주  
은갈치회, 딱새우회 합쳐서 고갈딱이다.

- △ 어물전 고갈딱 한판 65,000원
- 📍 신고로 42
- ☎ 064-782-8259



### 해녀가 잡은 제주 보말과 성게 제주해조네보말성게전문점

양식이 되지 않는 자연산 제주보말과  
제주성게로 정성껏 요리하는 맛집.

- △ 제주 보말죽 15,000원
- 📍 대평감산로 12
- ☎ 064-738-7908



IBK맛집노트

해녀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좀녀와농부**

해녀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로, 오전에 물질하고 와서 오후에 문을 연다.

- 모듬해산물 大 30,000원
- 온평리 1286-4
- 010-9546-4697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민딩오)



30년 역사의 흑돼지 전문점  
**늘봄흑돼지**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소고기, 흑돼지 전문점으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 삼겹살 22,000원
- 한라대학교 12
- 064-744-9001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베에엠)

비빔면 다 맛있어  
**상춘재**

비빔밥 맛으로, 제주흑돼지, 통영멍게, 돌문어, 꼬막, 명란까지 비빔밥으로 나온다.

- 적된장 도새기 돌솥비빔밥 16,000원
- 중앙로 598
- 064-725-1557



돼지고기의 정점  
**속성도 노형집**

설명이 필요한가? SBS 스페셜 '2019 돼지의 품격'에 출연한 돼지의 정점.

- 교차숙성흑돼지 21,000원
- 원노형로 41
- 064-711-5212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정매식)

제주도 전통음식을 먹고 싶다면

**닥그네할망**

돼지 뼈를 푹 고아 메밀가루를 뿌린 제주도 전통음식 짹짹국 맛집.

- 짹짹국 10,000원
- 신성로10길 18
- 064-756-5009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오리리)

30년 전통의 해장국 전문점  
**대촌해장국 본점**

해장국과 내장탕 2가지 메뉴로 30년을 지켜온 해장국의 달인.

- 해장국-내장탕 11,000원
- 연복로 398
- 064-757-7456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기분좋은날편)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디디나)

제주도에서도 빵지순례  
**오드랑베이커리**

빵순이들이라면 꼭 가야하는 곳. 마늘로 만든 '마늘바게트'가 스테디셀러다.

- 마늘바게트 6,800
- 조함해안로 552-3
- 064-784-5404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White shadow)

예약제 가성비 오마카세  
**오마카세미미**

현지 자연산 어종이나 고급 스시야 어종을 초모토식으로 숙성해 사용한다.

- 디너 숙성회 오마카세 120,000원
- 가문동길 11
- 064-745-9222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오트리블시티브문산)



흑돼지는 칼맛  
**도갈비**

육질이 좋은 제주흑돼지에 촘촘히 칼집을 낸 꽃고기가 유명하다.

- 흑도목 22,000원
- 한라대학교 85
- 064-712-5330

줄 서서 먹는 전복죽  
**도두해녀의집**

전복죽으로 유명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한다. 공항과 가까운 것도 장점!

- 전복죽 13,000원
- 도두항길 16
- 064-743-4989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doubkeou)

고기국수 하나로 승부하는 노포  
**올래국수 본점**

진한 국물에 부드러운 수육이 담긴 고기국수 하나에 전념한 오래된 맛집.

- 고기국수 8,000원
- 귀아랑길 24
- 064-742-7355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평방애호가)

제주도 육개장은 갈색  
**우진해장국**

제주산 고사리를 갈아 푹 끓여 갈색빛이 나는 제주식 고사리육개장이 유명하다.

- 고사리육개장 10,000원
- 서사로 11
- 064-757-3393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유니코)

돈이 아깝지 않은 횡집

**문섬횡집**

자연산 다금바리, 갯돔, 뽕어등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 다금바리 180,000원
- 원노형로 45
- 064-747-1760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배고파)

제주공항 가성비 횡집  
**바다길횡집**

신선한 제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공항 근처라 여행 일정에 넣기 좋다.

- 바다길스페셜 小 200,000원
- 서해안로 224
- 064-745-7654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지현421)



with IBK



30년 전통의 제주향토음식점  
**유리네식당**

갈치조림과 성게미역국, 고사리육개장 등 제주도 전통음식을 잘하는 맛집.

- 제주갈치조림 小 36,000원
- 연복로 146
- 064-748-0890

물반 고기반 소고기해장국  
**은희네해장국 본점**

국물보다 고기가 더 많은 걸로 유명한 소고기해장국 맛집이다.

- 소고기해장국 10,000원
- 고마로13길 8
- 064-726-5622



고급진 해산물 한상차림  
**이스방한상**

딱새우짬, 돌문어숙회, 참돔회무침 등 제주도 진수성찬을 맛볼 수 있는 곳.

- 시그니처 130,000원
- 흥운길 87
- 010-9163-1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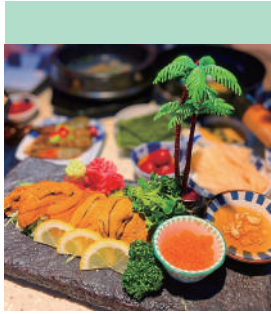




제주도의 낭만에 젖고 싶다면  
**제주횃집 애월밤바다**

고등어회, 딱새우회,  
은갈치회, 성게알 한판 등이  
인기 있는 트렌디한 술집.

- 📍 제주 고막친구 65,000원
- 📍 하귀3길 22
- ☎ 064-711-4488



가만히 느껴보는 힐링  
**카페책자국**

북카페이자 썸 관창은  
북셀렉숍으로 바쁜 여행 중  
힐링타임을 선사해준다.

- 📍 청굴카푸치노 6,000원
- 📍 종달로1길 117
- ☎ 010-3701-1989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ijhxxxx)

생선조림의 정수  
**조림전문점제주**

짜지 않고 맛있는 조림요리  
전문점 갈치와  
고등어만 조리한다.

- 📍 갈치초림 2인 42,000원
- 📍 신북로 624
- ☎ 064-782-8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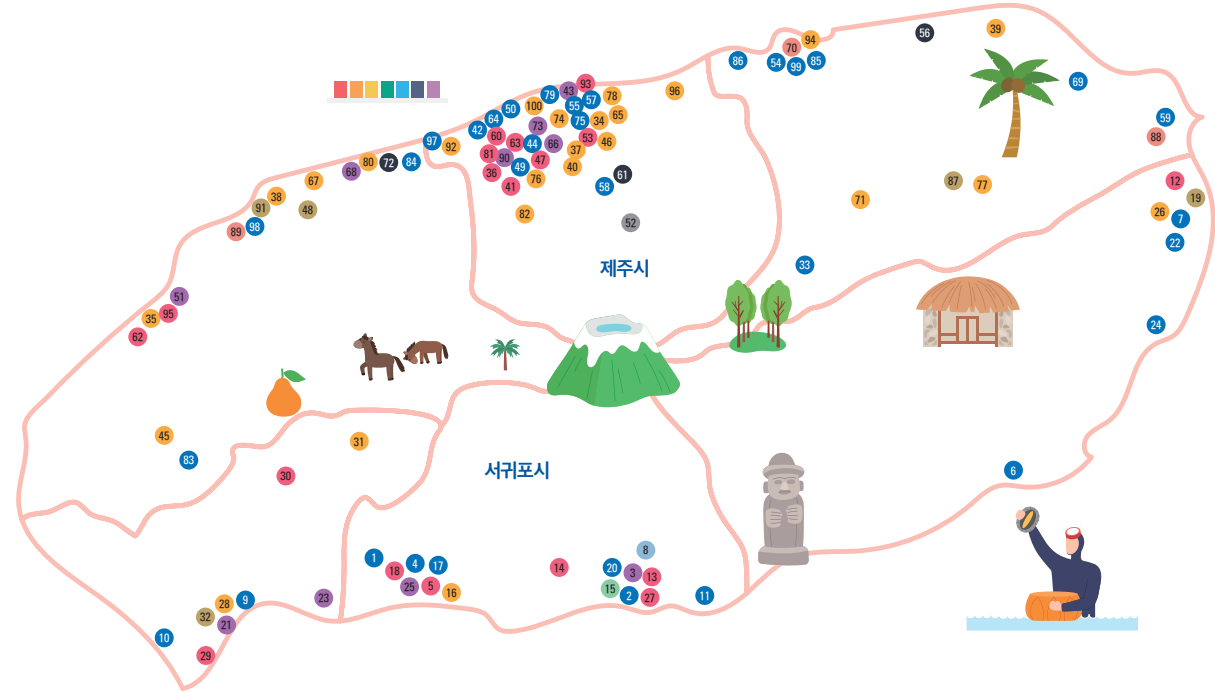
(xxxxxx)@방문자 리뷰  
맛을 노미오



아이를 위한 특별한 도시락  
**하루밥**

제육 정식 맛집인데,  
귀여운 캐릭터도시락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 📍 정식 9,000원
- 📍 도근내길 28
- ☎ 064-743-0530



● 한식 ● 분식 ● 육류 ● 해산물 ● 카페 및 베이커리 ● 면류 ● 아시아 ● 일식 ● 중식 ● 양식

**IBK 임직원들이 추천하는 제주도 맛집 리스트**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b>서귀포시</b>				
1	갈치왕 중문점	해산물	일주서로 1146	064-739-9333
2	고미	해산물	서문로 46	064-732-8501
3	고세내해장국수	면류	중앙로79번길 4	064-764-0436
4	고집돌우럭 중문점	해산물	일주서로 879	0507-1408-1540
5	골목강통구이	육류	천제연로185번길 6	064-739-9892
6	광어다	해산물	민속해안로 73	064-787-8838
7	동남식당	해산물	고성오조로 86	064-782-0978
8	동홍분식	분식	동홍로 205	064-762-1812
9	만미식당	해산물	사계남로 155	064-794-0081
10	미영이내식당	해산물	하모항구로 42	064-792-0077
11	보일식당	해산물	보목도로 45	064-732-0840
12	북자씨연탄구이	육류	해맞이해안로 2764	064-782-7330
13	불살집 제주본점	육류	증정로91번길 41	064-763-6860
14	삼강식당 본점	육류	신서로102번길 53	064-739-1136
15	서귀포호	등남야	서문로29번길 9	064-902-9938
16	소소식당	한식	대포로 69-12	064-738-2257
17	어머니횃집	해산물	중문로 54	064-738-2641
18	연돈	육류	일주서로 968-10	0507-1386-7060
19	월리라	양식	성산성양로 33	0507-1404-5120
20	제일수산횃집	해산물	중앙로79번길 8	064-767-4838
21	제주선재향	면류	사계남로84번길 6	064-794-7177
22	제주어울진	해산물	신교로 42	064-782-8259
23	제주해조네보말성게전문점	면류	대평강산로 12	064-738-7908
24	좁니와농부	해산물	운평리 1286-4	010-9546-4697
25	중문수두리보말갈국수	면류	천제연로 192	064-739-1070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26	지은이내밥상	한식	고성오조로97번길 17	064-784-2915
27	천치골식당	육류	중앙로41번길 4	064-763-0399
28	춘미향식당	한식	산방로 378	064-794-5558
29	큰돈가 본점	육류	형제해안로 296	064-794-0722
30	풍로	육류	신화역사로 423	064-792-1108
31	한라산이래찾마를 제주매일식당	한식	신록남로 675	064-792-8259
32	환이네이태리식당	양식	사계중앙로18번길 5	070-7788-8686
<b>제주시</b>				
33	각지불	해산물	남조로 1751	064-784-0809
34	굴막식당	한식	천수로 12	064-753-6949
35	글늘이모네	한식	합재길 33	064-796-5222
36	블룸훅돼지	육류	한라대학로 12	064-744-9001
37	딕그네할망	한식	신성로10길 18	064-756-5009
38	단소	한식	애월로 139-4	070-8018-7178
39	담백	한식	해맞이해안로 518	064-783-0045
40	대촌해장국 본점	한식	연북로 398	064-757-7456
41	소소식당	육류	한라대학로 85	064-712-5330
42	도두해녀어집	해산물	도두항길 16	064-743-4989
43	도토리키킨	면류	복성로 59	0507-1463-1021
44	두루두루식당	해산물	삼무로3길 14	064-744-9711
45	뽕보이저씨	해산물	중산간사로 3651	064-772-1112
46	메로식당	한식	광양13길 34	064-757-2377
47	명호마농갈비 본점	육류	신대로12길 15	064-744-8903
48	모듬한상	양식	하귀로 180	070-7576-3503
49	운성횃집	해산물	원노형로 45	064-747-1760
50	바다길횃집	해산물	서해안로 224	064-745-7654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51	바당길	면류	한림서길 18	064-796-1658
52	백일죽야	중식	산천단동3길 26	064-725-1687
53	베리굿닭고기떡볶이전문점	육류	중앙로 240	064-759-2292
54	보베셀보리김치와계장 함덕점	해산물	신북로 409	064-784-0289
55	복집식당	해산물	비룡길 5	064-722-5503
56	빚소리	일식	감녕로 151	064-8861-7081
57	살아있는해물떡볶이 어마장장	해산물	상지로 62	064-722-2151
58	심춘재	해산물	중앙로 598	064-725-1557
59	소금바치순이네	해산물	해맞이해안로 2196	064-784-1230
60	솔지식당	육류	월랑로 88	064-749-0349
61	쇼고스시	일식	인덕13길 39	064-755-7585
62	수우동	육류	합재길 11	064-796-5830
63	숙성도 노형점	육류	원노형로 41	064-711-5212
64	순옥이네 명가 본점	해산물	도공로 8	064-743-4813
65	신살오름	한식	고마로17길 2	064-758-0143
66	신제주보말갈국수 제주본점	면류	신덕로5길 19	064-711-7140
67	애월 우니네	한식	고내로13길 107	064-799-5433
68	애월집	면류	애월해안로 690	064-745-7024
69	연미정	해산물	세명항로 14	064-784-8856
70	오드랑베이커리	베이커리	조함해안로 552-3	064-784-5404
71	옴름나그네	한식	신교로 525	064-784-2277
72	오마카세미미	일식	가문동길 11	064-745-9222
73	올래국수 본점	면류	귀아랑길 24	064-742-7355
74	우진해장국	한식	서사로 11	064-757-3393
75	원당	해산물	동광로1길 13	064-900-0211
76	유리네식당	한식	연북로 146	064-748-0890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77	으뜨미식당	한식	중산간동로 2287	064-784-4820
78	은혜내해장국 본점	해장국	고마로13길 8	064-726-5622
79	이스빙한상	해산물	홍윤길 87	010-9163-1060
80	제주광해 애월본점	한식	애월해안로 867	064-713-4789
81	제주돔베고기집	육류	월랑로42길 6	064-713-9949
82	제주애한	한식	1100로 2997	064-746-0403
83	제주오름과바방	해산물	녹차분재로 531	064-772-7778
84	제주횃집 애월밤바다	해산물	하귀3길 22	064-711-4488
85	조림전문점제주	해산물	신북로 624	064-782-8886
86	조천수산	해산물	조천북1길 35-8	010-4695-1426
87	치저스 제주	양식	비자림로 1785	0507-1378-1504
88	카페책자국	카페	종달로1길 117	010-3701-1989
89	카페태희	카페	곽지3길 27	064-799-5533
90	평담육	면류	원노형로 66	064-752-7890
91	피즈	양식	애월로 29	0507-1348-5148
92	하루밥	한식	도근내길 28	064-743-0530
93	하루병보림 제주본점	육류	중앙로2길 9	064-752-7890
94	해녀김밥 본점	한식	함덕로 40	064-782-3005
95	합재고기부엌	육류	합재1길 1	010-9756-6305
96	화성식당	한식	일주동로 383	064-755-0285
97	황해식당	해산물	우정로 6	064-747-9737
98	회가서쪽에서뜨겠네	해산물	애월로 12	0507-1361-6012
99	혼남횃집	해산물	함덕13길 7	064-783-0083
100	할망곰탕	한식	용해로 65	064-712-6019



속세 넘어  
왕이 거닐던 길을 따라서

속리산  
보은 오리숲길과

세조길

속리산처럼 오묘한 뜻을 품은 산이 또 있을까. '속을 버리고 불도에 입문한 산'이라는 의미이고, '산은 사람을 떠나지 않는데 사람이 산을 떠나는 구나(山非離俗 俗離山)'란 고운 최치원의 시가 내려와 더욱 신비롭게 느껴진다. 속리산의 품에는 세조길이 나 있다. 세조가 요양차 자신의 스승인 신미대사가 머물던 복천암으로 순행 온 역사적 사실에 착안해 붙인 이름이다. 세조길 탐방은 범주사까지 이어진 오리숲길과 복천암까지 나 있는 세조길을 함께 걷는다.

글, 사진 전우석

俗離山



### 법주사로 이어진 오리숲길

속리산은 한강·금강·낙동강의 물길이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산이다. 산세는 한마디로 기골이 장대하다. 최고봉 천황봉, 문장대, 입석대 등 장대한 바위봉이 가득 솟구쳤다. 험준한 산세지만 그 품에 유순한 길을 품고 있는데, 그곳이 세조길이다. 서늘한 공기에 잠이 깬다. 청아한 새소리와 진한 나무 향기가 텐트 속으로 밀려온다. 아침부터 '까르르'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듣기 좋다. 간밤에 속리산사 내리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속리산 오리숲 옆에 자리한 캠핑장으로 사이트가 널찍하고 숲이 좋아 가족 캠퍼들이 많이 찾는다. 캠핑장의 아침은 느리고 평화롭다. 그 분위기에 젖어 느긋하게 아침을 지어 먹고 길을 나선다. 캠핑장을 나오면 법주사까지 오리숲길이 이어진다. '10리가 안 되고 5리만 이어진다'고 해서 오리숲길이다. 밀동 굽은 소나무들이 터널을 이룬 길이다. 자

유롭게 가지를 뺀어 곡선을 그리는 소나무들은 성스럽게 느껴진다. 맑은 공기를 심호흡하며 되도록 천천히 걸었다. 법주사 매표소를 지나면 '세조길 자연관찰로' 안내판이 반긴다. 세조길의 시작이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어우러진 오리숲길에는 신록과 꽃이 어우러져 장관이다. 오리숲길의 종착점에 법주사가 있다. 관음봉, 문장대, 천황봉 등 우람한 주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속리산 최고의 명당자리다. 법주사는 553년(신라 진흥왕 14년)에 의신이 창건했고, 776년(혜공왕 12년)에 진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 미륵신앙의 중심 도량으로 바뀌었다. '호서지방 제일가람'이란 별칭처럼 법주사 경내와 암자에는 국보 3점, 보물 12점, 지방유형문화재 22점 등 수많은 문화재를 흠어져 있다.



02



01

### 호서지방 제일가람, 법주사

경내로 들어서 금강문과 천왕문을 연달아 지나면 국보 제55호인 팔상전을 만난다. 5층 건물인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이다. 팔상전이라는 이름은 팔상도를 모신 건물이라는 뜻이다. 팔상도는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장의 그림으로 표현했다. 부처가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 세상을 관찰하는 모습, 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보리수 아래에서 마귀의 항복을 받는 모습, 녹야원에서 첫 설교를 하는 모습, 열반에 드는 모습 등 8장면이다. 그중 열반에 드는 모습이 너무 편안하게 보여 한참을 쳐다봤다. 이어 팔상전 뒤의 국보 제5호 쌍사자 석등을 감상하고, 법주사의 중심 법당인 2층 대웅보전

- 01 '호서제일가람' 현판이 붙은 법주사 일주문은 세조길로 가는 입구다.
- 02 법주사 금강문을 지나면 청동미륵대불과 천왕문이 보인다.
- 03 법주사 매표소를 지나면 세조길 자연관찰로가 시작된다.



03

047





04



05



06

- 04 시종일관 완만한 숲길이 이어지는 세조길
- 05 법주사 삼거리부터 세조길이 이어진다.
- 06 세조가 신미대사를 찾아갔던 복천암은 세조길의 종착점이다.
- 07 법주사 입구의 정이품송. 속리산의 상징이다.

에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다. 법주사 경내에는 원통보전, 석연지, 철당간, 무쇠솥, 마애여래의상 등 많은 유물이 있으니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살펴보자. 법주사를 나와 다시 세조길을 잇는다. 세조길과 나란히 있는 도로는 예전부터 있던 길이다. 이 길은 주말이면 등산객과 부속 암자를 찾는 차량이 뒤엉켜서 혼잡함이 심했다. 이런 이유로 국립공원에서 새로운 탐방로 세조길을 열었고, 덕분에 호젓한 숲길을 따라 걸을 수 있다.

길은 계곡을 막아서 생긴 널찍한 저수지 옆을 따른다. 저수지 안에는 하늘이 잠겨 있고, 물고기들이 살랑거린다. 휴게소를 지나면 계곡을 따라 데크길이 이어진다. 수량이 적지만, 물소리가 제법 크게 들린다. 계곡으로 크고 작은 바위들이 흩어져있는 까닭이다. 귀를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물소리가 번뇌와 망상을 씻어주는 느낌이다. 이윽고 도착한 목욕소. 피부병을 얻은 세조 임금이 이곳에서 목욕을 하다가 월광태자를 만나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가 내려온다.

### 신미대사가 머물던 복천암

세심정휴게소를 지나 '이 뒹고 다리'를 건너면 복천암으로 들어선다. 복천암은 세조가 마음의 병을 고친 곳으로 알려졌다. 삼일을 기도하고, 삼일 신미대사의 설법을 들은 후 복천암 샘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다고 한다. 샘물을 떠 마셔본다. 달고 진한 맛이 일품이다. 웬지 복 받을 것 같아 벌컥벌컥 들이켠다.

복천암에서 세조길은 끝나지만, 오른쪽으로 난 데크길을 따라 올라가 보자. 이정표도 없는 이 길이 복천암의 숨은 보물이다. 설렁설렁 이어진 오솔길을 십 분쯤 오르면 고갯마루에 이르는데, 여기에 신미대사와 그의 제자 수암화상의 승탑이 자리한다. 승탑 뒤 소나무 사이로 속리산의 우람한 암봉 능선이 보인다. 승탑에서 내려오면 산꾼들의 명소인 비로산장이 나온다. 계곡을 낀 산장은 주변으로 큰 바위들과 키 큰 나무가 어우러져 분위기가 그만이다. 고 김태환 씨가 지은 개인 산장으로 52년

역사를 자랑한다. 지금은 대를 이어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산장 마당에 들어서면 무료로 녹차를 건네며 심터를 제공한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산장을 바라보는 맛이 그윽하다. 밤새 계곡 물소리 들으며 하룻밤 묵어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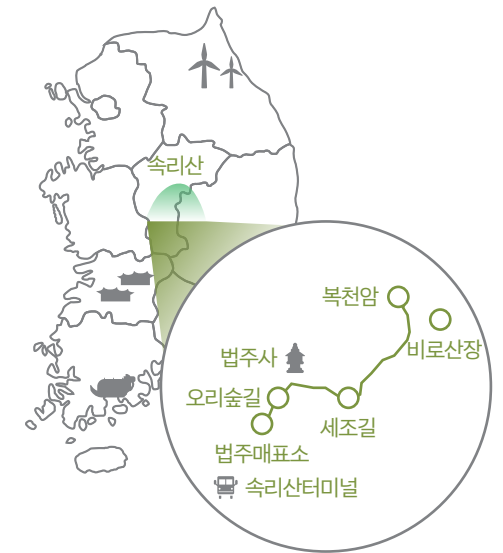
07

2023 May

### 속리산 오리숲길과 세조길 가이드



세조길은 법주사 삼거리에서 종착점인 복천암까지는 3.2km, 넉넉하게 1시간 30분쯤 걸린다. 시종일관 쉬운 길이라 가족과 연인이 느긋하게 걷기 좋다.





## 아드리아해의 중세 성벽 길을 걷다

##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아드리아해의 진주’, ‘발칸반도의 낙원’.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 대한 수식은 현란하다.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해에 신기루처럼 떠 있는 성채도시다. 구도심과 바다를 품고 이어지는 성벽길은 도시가 지켜온 굳건한 세월과 함께 설렘을 더한다. 두브로브니크와 성곽은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배경이 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글. 사진 서영진

Croatia  
Dubrovnik





01

01 두브로브니크 성벽에서 조망한 붉은 지붕의 구시가지 전경

### 붉은 지붕, 푸른 바다와 마주하는 길

두브로브니크의 성벽길은 눈부시고 매혹적이다. 성곽 안은 구도심의 붉은 지붕과 번들거리는 골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바깥쪽은 아드리아해의 푸른 바다가 아득하게 펼쳐진다.

성벽길 걷기는 두브로브니크의 유일무이한 체험으로 사랑받는다. 성벽 위를 걷기 위해 수천km를 달려와 도시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10세기에 축성한 성벽은 13~14세기에 증축됐으며 15세기 오스만제국의 위협 당시 더 두껍게 쌓아 올려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성벽의 길이는 약 2km에 최고 높이가 25m, 성벽 두께가 넓은 곳은 3m에 달한다. 유럽의 성벽 중에서도 가장 보존 상태가 뛰어나며, 성곽과 구도심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성벽길 걷기는 도시의 지난한 역사와 함께해 뜻깊다. 성채도시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해를 호령하

던 중세 도시국가였다. 베네치아공화국과 필적한 유일한 해상무역국이었으며 700여 척의 상선을 보유하고 지중해를 붉은 깃발로 장악했다. 두브로브니크는 크로아티아에 편입되기 전까지 뛰어난 외교술과 ‘자유’의 기치 아래 독립된 공화국을 유지했다. 성채는 도시의 안위를 위한 소중한 방어벽이었고, 유고 내전을 견뎌낸 버팀목이었다.

### ‘왕좌의 게임’의 배경이 된 성벽과 요새

성벽길은 육지와 연결된 필레게이트 혹은 바다와 이어진 플라체게이트에서 시작한다. 계단을 따라 올라선 성벽의 육지 쪽은 해자가 깊게 파여 있고, 바다는 난공불락의 위풍당당한 외관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성곽과 도시는 바

다 위에 떠 있는 듯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흡사 왕좌의 게임에 나왔던 도시국가 ‘킹스랜딩’의 모습과 닮았다.

성벽길은 단순한 걷기 여행길이 아닌, 요새와 탑, 문 곳곳에 담긴 두브로브니크의 스토리와 사연을 만나는 길이다. 성벽 위에는 5개의 요새, 16개의 탑과 보루 등을 갖추고 있다. 필레게이트에서 걷기 시작할 경우 북쪽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육중한 건물이 민체타 요새다. 1464년에 완공된 요새는 육지 쪽 성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수려한 전망을 선사한다. 매년 7월 두브로브니크 여름 페스티벌이 열릴 때면 민체타 요새에는 국기 외에도 자유를 상징하는 ‘리베르타스’ 깃발이 게양된다. 두브로브니크는 15세기에 세계 최초로 노예 매매를 폐지할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았다.



02

02 성벽 북쪽에 자리한 민체타 요새

03 성 이반 요새와 구항구 풍경

남서쪽의 보카르 요새를 기점으로 붉은 지붕 따라 이어지던 성벽길은 아드리아해의 푸른 바닷길로 색을 바꾼다. 보카르 요새 맞은편의 로브리예나츠 요새와 카누 탑승장이 있는 필레베이는 필레게이트와 함께 ‘왕좌의 게임’의 주요 촬영지였다. 성벽 남쪽 길은



03



탑과 보루가 드문드문 출현하는 좁은 성벽이 이어진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요트와 배들이 오가는 풍광들도 이곳에서 또렷하다. 구멍을 뜻하는 ‘부자’를 지나 성벽 아래 매달린 ‘부자’ 카페들은 외부와 단절된 낯선 모습이다.

사각형으로 세워진 남동쪽 성 이반 요새에는 해양박물관이 있으며 이곳 주민들이 즐겨 찾는 성벽 해변과 포르포렐라 등대로 연결된다. 구항구 지나 성벽 북쪽 길에서 바라보는 구도심의 골목들은 좁고 가파르다. 성곽 안 북쪽에는 슬라브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했다. 성당, 박물관 등 주요 건물들이 들어선, 로마계 주민들의 남쪽 삶터와는 다른 풍광을 지녔다. 성벽에서 내려와 벽과 일상의 온기를 느끼며 성벽 아랫길을 다시 걷는 것 또한 색다른 감동을 전해준다.

**일상과 중세 건축물이 공존하는 구도심**

성곽 안 구도심은 플라차 대로(스투라둔)를 중심으로 개성 넘치는 삶들이 전개된다. 골목에는 이발소와 정육점이 있고, 빈터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며,



054



05

군둘리세바 구르쉬 등 아침 시장이 들어선다. 두 번의 지진 뒤에 재건된 플라차 대로는 석재와 대리석, 중세의 건축물들로 채워져 있다. 대로의 랜드마크인 오노브피오스 분수는 15세기 초 건설됐으며 16개의 수도꼭지에 각기 다른 얼굴과 동물 문양이 이채롭다. 르네상스 양식의 성 그리스도 성당은 두브로브니크 여름 페스티벌에는 콘서트홀로 변신하며, 성당 옆 프란체스코 수도원에는 14세기 후반 문물 연수 도원 약국이 아직도 건재하게 남아 있다.

성 내부에는 도시의 수호성인 성 블라이세를 기념하는 성당과 스폰자 궁전, 렉터 궁전 등 유적들이 위풍당당하다. 스폰자 궁전은 성 안에 들어오는 상인들이 거쳐야 했던 곳으로 6개의 기둥으로 된 1층 화랑은 세공술이 도드라진다. 두브로브니크는 11~13세기 금, 은의 수출항으로 황금을 맞았다. 총령의 집무실이던 렉터 궁전은 고딕과 르네상스 양식이 혼재된 15세기의 조각 기둥이 견고하다. 귀족 중 선출된 총령은 1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사사로이 집무실을 떠날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내부에는 ‘개인을 잊고 공공을 위해 고민하라’는

with IBK

글귀가 라틴어로 적혀 있다. 성 이그나시에 성당 앞 바로크풍 계단은 ‘왕좌의 게임’에서 여왕 세르세이가 나체로 걸었던 대표 장면을 찍은 곳이다.

두브로브니크에서는 매년 7월 초 50일간의 여름 페스티벌이 열린다. 유럽 각지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오고 ‘자유’의 깃발 아래 오페라, 연극, 발레, 콘서트가 펼쳐지며 중세의 공간들은 축제의 현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성곽 동쪽 구항구의 레스토랑들은 연희와 음악으로 채워지고, 유람선들은 화려한 불꽃 아래 바다 위로 밀려 나간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성곽을 벗어난 바깥 공간이 오히려 차분하다. 스크지산에 오르거나 플로체 지역의 언덕을 서성거리도 좋다. 비탈과 언덕에서 붉은 성곽과 푸른 바다의 윤곽이 한눈에 담긴다. 두브로브니크의 바다는 곳곳이 다이빙 포인트며 10월까지 따사롭고 평온하다.

- 04 구도심 플라차 대로의 종탑
- 05 성벽 사이로 조망한 아드리아해
- 06 바다와 함께 2km 이어지는 성벽길
- 07 성벽과 로브리예나츠 요새



06



07

**두브로브니크 성벽길**



두브로브니크 성벽길은 필레, 플라체 게이트 외에 구항구 부두에서 시작할 수 있다. 약 2km 코스로 요새, 카페 등을 두루 관람하며 걷는 데 약 3시간이 소요된다. 걷기 코스는 한 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며, 성벽에 오르면 별도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두브로브니크 카드를 구입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성벽의 역사를 들으며 걷는 가이드 투어, ‘왕좌의 게임’ 촬영장소를 방문하는 투어 등이 마련돼 있다. ‘왕좌의 게임’에 나온 로브리예나츠 요새 등은 성벽길 밖에서 별도로 이동해야 한다. 여름철에 모자와 선글라스 등은 필수다.





연분홍  
진달래의 노래,  
비슬산

때로는 별이 좋아서,  
오늘은  
구름이 좋아서

‘참꽃’으로도 부르는 진달래가 절정이다. 늦은 밤 IBK본점에서 출발해 동도 트기 전 도착한 비슬산. 며칠 전엔 꽃샘추위도 있었고, 도착한 날도 흐려 햇살은 없었지만 산기슭 가득한 진달래는 아름다웠다. 물론 꽃보다 좋았던 건 도심의 건물이 아닌 신록의 자연에서 함께 한 사람들, 그리고 나는 이야기였다. 구름 속 진달래에 취했던 그 시간 속으로.

글 서승범 사진 영상 이대원 영상편집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01 "자, 이제 저희 출발합니다."  
23시 40분 IBK본점 출발~!
- 02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강조하는  
신철민 등반대장의 당부
- 03 가족과 함께 참여한 의정부지점  
우속경 팀장과 든든한 남편
- 04 능선으로 치고 오르는 길은 진달래도  
없고 오르막의 연속이다.  
말이 없어지는 구간!



해가 뜨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일상생활과  
산행은 무리가 없는  
'시민박명'의 시간.  
산행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과 날씨다.

### 깊은 밤을 날아서 비슬산으로

겨울의 끄트머리에서 봄이 곧 올 거라 말하는 동백이 척후병이라면, 아직 쌀쌀할 때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화와 산수유는 봄의 전령이다.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게 벚꽃이라면 봄의 절정은 역시 연분홍 진달래다. 노랑의 개나리와 함께 주택가와 도심의 공원부터 오지의 산자락까지 봄으로 물들이는 건 개나리와 진달래다. 진달래를 닮은 철쭉은 6월, 곧 여름이라는 자연의 메시지다.

한 주가 지나 주말로 접어드는 금요일 밤. 자정을 조금 앞둔 시각, 배낭을 맨 이들이 을지로 분사에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했다. 꽃 보러 산에 가기 위해서다. 진달래가 한창이라는 대구 비슬산을 향해 50명 가까운 인원을 태운 두 대의 버스가 출발한 건 밤 11시 40분.

봄의 절정을 사무실과 집에서 뉴스로 접하기는 아쉬워 IBK인들과 함께 떠났다.

“지난해 4월에 혼자 비슬산 갔을 때 진달래 가득한 풍경이 참 좋았어요. 혼자 보기 아깝다고 생각해 산행지 결정할 때 협의해서 비슬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즐거운 추억 안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신기획부 백상현 부장은 안전산행과 더불어 즐거운 산행을 기원했다.

늦은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고 서울 도심은 쉽게 빠져나갔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버스 안의 불은 꺼졌고, 우리는 잠에 빠져들었다. 깊은 밤을 날아 분홍으로 물든 비슬산으로!

어라, 잠깐 멈춘 휴게소에서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날씨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는 없었다.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릴 걸 알고 가는 산행이었고, 구름 가득한 능선의 아름다움은 맑은 날에는 경험할 수 없으니까. 꽃 또한 구름과 어떻게든 어울리겠지.







대구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산 들머리까지는 좀더 가야 하지만 산행은 밥심이 있어야 하는 법, 국밥 한 그릇씩 든든히 먹고 비슬산 입구 유가사에 도착하니 5시 40분이다. 해가 뜨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일상생활과 산행은 무리가 없는 ‘시민박명’의 시간. 바닥은 젖어 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고 멀리 산봉우리는 구름에 가려 있었다. 산행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과 날씨다. 가볍게 몸 풀고, 단체사진도 한 방 찍고 드디어 출발.

**비슬산을 점령한 진달래**

비슬산은 해발 1,084m로 정상은 천왕봉이다. 흔히 대구의 산을 말할 때 ‘북 팔공 남 비슬’이라 한다는

데, 거꾸로 말하면 비슬산의 북쪽은 대구이고 서쪽은 낙동강이며 동남쪽은 ‘영남알프스’로 산줄기가 이어진다.

들머리는 대개 유가사 아니면 비슬산자연휴양림을 통해 오르는데 우리는 유가사에서 출발한다. 진달래만 구경할 거라면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도 되지만, 진달래를 저만치에 두고 바라보며 능선을 걷는 맛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

고진감래. 산에서 이 말은, 꽃을 보려면 일단 가파른 경사를 치고 올라야 한다는 뜻이다. 유가사에서 천왕봉까지는 약 3.5km를 올라야 하는데 마지막 몇백 미터만 능선이고 능선까지는 계속 경사로다. 인원이 많다 보니 자연스

럽게 여러 소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선두는 구로동기업금융지점 신철민 차장이 이끌었고, 후미는 여신기획부 송하연 대리가 책임졌다. “함께 산행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네요. 그 친구들과 함께 후미를 맡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산행을 했거든요. 올해 5년 차인데, 처음에는 사람들 많고 화려한 곳이 좋았는데 이제는 이런 자연으로 오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능선에 올라서니 가느다란 빗줄기가 바람에 날렸고, 그 사이로 간간히 진달래가 보였다. 잠깐의 능선 산책을 마치면 정상, 원래는 낙동강 줄기도 보이는 천왕봉이건만 사방을 진하게 에워싼 구름 때문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운무가 가득한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그



05 오르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올랐는지 짐작케 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06 환하게 웃으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07 잠시 숨을 돌리면서 한데 모여 찰칵!





흐린 날씨에도 진달래가 가득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눈앞의 진달래도, 저 먼 곳의 진달래도 두루 좋았다.

- 08 진달래 촬영 삼매경. 비구름 속 진달래는 물기를 머금어 아름답다.
- 09 "어, 이게 아닌데" 구름 덕분일까, 포스가 느껴지는 사진
- 10 "정상이다!" 흐린 날씨 덕에 한산한 정상에서 우리끼리 인증샷
- 11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운치 있는 풍경이 연출되었다.



08



09

룹으로 모여 간식을 먹는데 바람이 세졌다. 따뜻한 물을 나눠 마시고 능선을 따라 다시 걷는다. '고진'의 시간을 보냈으니 '감래'의 시간을 만끽해야지.

빗방울이 맺힌 분홍의 잎이 무거워 보이는 진달래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어느 모퉁이를 도는 찰나, 시야가 트이면서 건너편 산사면이 눈에 들어왔다. 흐린 날씨에도 진달래가 가득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눈앞의 진달래도, 저 먼 곳의 진달래도 두루 좋았다.

**산을 함께 오르고 싶어서**

"입행하고 나서 계속 산을 다녔어요. 지금은 은퇴를 했으니 OB라 해야겠네요. 산에 오면 친정 온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 좋고 마음 편하고. 예전에 비슬산 진달래를 봤을 때 내 인생에 그런 꽃 풍경을 본 게 처음이라 이번에도 왔어요. 그때랑은 다르지만 구름 낀 분위기는 또 달라서 좋은데요."

"아내가 산행에 오면 저도 함께 와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으로도 아내가 오면 올 생각입니다. 와 보니 알겠어요. '참! 좋은 은행, 기업은행'이 광고 문구였는데, 왜 '참 좋은 은행'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좋아요."

의정부지점 우숙경 팀장은 산행에 자신이 없어 민폐 끼치는 걸 막고픈 마음에 남편과 동행을 했다는데, 남편이 더 오고 싶어한다고.

처음 산행에 참가한 이들에게는 녹록치 않은 산행이었다. 고객센터 최지선 대리와 장경화 대리는 평소 산행에 마음만 두었다가 이번에 용기를 내어 신청하게 되었다고.

고객센터 최지선 대리는 "혼자 가긴 애매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1월에 눈꽃산행 할 때 장경



10

화 대리가 같이 가져다 해서 간 이후로 두 번째 함께 오게 되어 너무 좋았다"고 밝혔다. 이에 장경화 대리는 "비슬산도 참 좋았어요. 5시간 넘는 산행은 사실 처음인데, 괜찮네요. 아마 다음 산행에도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바람을 내비쳤다.



11

진달래가 연분홍이지만 보라에 가까운 꽃도 있고 흰색에 가까운 분홍도 있다. 그뿐이라, 소나무에 남은 지난해의 잎은 짙은 녹색이고 이번 봄비에 싹을 틔운 새잎은 그야말로 신록이다. 여기에 편안한 능선과 여기저기에 우뚝한 암봉들, 봉우리를 둘러싼 구름까지 어우러져 풍경을 완성한다. 이들은 알까, 스스로가 '참 좋은 은행'을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걸.

**저마다의 산, 저마다의 꽃**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한 번 가본 산이나 코스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산이고 코스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느껴보시길 권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세대가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신철민 차장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등반대장과 스탱을 밟고 재미도 즐기시라는 조언을 남겼다. 산행은 물론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하다면, 재미를 느끼고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저마다의 산을 오른다. 매일 성실하게.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은 다르지만 저마다 최선을 다한다. 오르막길이 끝없이 이어지기도 하고 구름에 가려 시야가 터지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다. 그래도 능선에 서면 산들바람이 땀을 식히기도 하고 모퉁이를 돌면 널리 핀 진달래 꽃밭을 만나기도 한다. 오르막과 모퉁이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마다의 꽃 또한 있지 않겠는가.



13



12

12 정상에서 간단히 요기와 따뜻한 차 한 잔  
13 진달래 가득한 비슬산 산자락에서 동기들 모여 한 컷. 카드사업부 강한빛 대리(뒷줄 가운데, 이후 시계 방향), 퇴직연금부 김은혜 대리, 원주지점 이다솜 대리, 여신기획부 박동훈 대리, 여신기획부 손주영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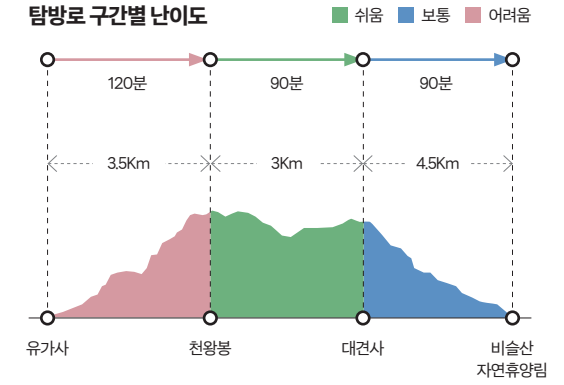
14

14 "버너야, 이 맛이야" 고객센터 장경화 대리(왼쪽)와 최지선 대리

비슬산 INFO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양리 산3-1
- 코스 유가사-천왕봉-대건사-비슬산자연휴양림(11km)
- 문의 비슬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053-659-4400



Tip 진달래야, 철쭉이야?

산행 중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는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산에 다니면 가장 많이 헛갈리는 게 '봄 철쭉 가을 역새'다. 봄에는 철쭉과 진달래, 가을에는 역새와 갈대를 구분하는 법.

진달래는 먹을 수 있어 참꽃이라 부르고 철쭉은 독성이 있어 개꽃이라 부르지만 무턱대고 맛을 볼 순 없다. 4월에 피는 진달래는 꽃이 저야 잎이 돋고, 5월에 피는 철쭉은 꽃이 잎과 어울려 핀다. 그러니 **꽃만 있으면 진달래, 잎이랑 섞여 있으면 철쭉**이다. 역새와 갈대가 궁금하다면 11월 호를 기대하시라.



# 풍선을 타고 날아볼까 멀리 화살을 쏘아볼까

어릴 적 놀이동산에서 실수로 놓쳐버린 풍선은 지금 어디쯤을 날고 있을까? 동료들과 함께 수원을 방문한 IBK인들은 열기구와 국궁체험을 통해 잃어버렸던 동심을 찾아갔다.

촬영세권 사진 김성재 영상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Let air

balloon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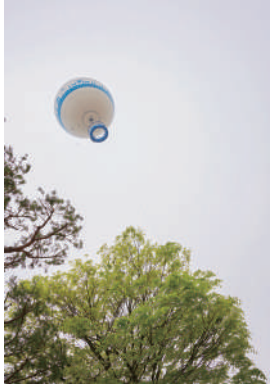
어릴 적 만화영화를 보면서 언젠간 이뤄보리라 다짐했던 것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둘 나이가 들다 보면 어느새 새까맣게 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 약간의 돈과 시간만 투자한다면 말이다. 그런 소원 중 하나가 바로 하늘을 날아보는 것이다. 당장 주말에 시간을 내서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도 있고, 열기구를 탈 수도 있다. 그런 어릴 적 소원을 이뤄보기 위해 11명의 IBK 가족들이 모였다. 가장공단지점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다. 이제는 훌쩍 커버린 IBK인들의 자녀들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직원과 함께 열기구 체험장 앞에 모였다. “가장공단지점 직원 5명과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자녀들이 유독 기대감에 신이 난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열기구가 뜰 수 없다고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플라임수원’에서 운행하는 것은 사실 열기구가 아니다. 화기를 통해 하늘을 나는 열기구와 달리 헬륨을 주입하는 헬륨기구로 열기구보다 안전하며, 잘 훈련된 파일럿이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뭐 중요하랴. 커다란 기구 앞에 선 이들은 서로 인증샷을 찍어주기 바쁘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일행들이 탑승하자 기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와! 올라간다!” 흥민지 과장의 아들 준우가 소리친다. 신기한 표정으로 기구 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느새 꽤나 높아졌다. 멀리 수원화성이 보이고, 잠시 뒤에 체험해볼 국궁체험장도 보였다. 함께 탑승한 자녀들 가운데

겉이 많은 아이는 이내 기구 안에 쪼그려 앉았다. “에이, 하나도 안 무섭네!” 준우는 두려움과 싸우려는 듯 괜히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흥민지 과장과 남편 경영관리부 이종표 차장은 그 모습을 기특하게 바라보았다. 어느새 기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하자 기구가 멈춰섰다. 7월 입대를 앞둔 김지섭 대리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와 보니 기분이 좋네요! 참여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인생은 과녁을 벗어난 화살처럼**

조금 전까지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았던 일행들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지 신이 난 표정이다. “이제 국궁체험장으로 가시죠!” 김호진 팀장은 일행들을 데리고 국궁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기구체험장에서 국궁체험장은 지척이라 창룡문을 지나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다. 국궁체험을 할 수 있는 동장대는 정조대왕이 수원성을 쌓을 때 군사들의 훈련장으로 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곳에서 조선의 정예부대가 국궁을 연마했다. 그리고 오늘 IBK인들이 그 자리에서 활을 들었다.



우리가 어릴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 그런 소원 중 하나가 바로 하늘을 날아보는 것이다.







“화살의 끝을 활시위에 걸치고 과녁을 바라보면 됩니다. 한쪽 눈을 감지 마시고 과녁을 똑바로 보셔야 제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활 쏘는 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주시곤 시범으로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하늘을 가른 화살이 과녁의 정중앙에 꽂히자 탄성이 터져 나온다. 이번엔 IBK인들이 화살을 쏘아볼 차례다. 처음 잡아보는 활이 신기하기만 하다. TV에서 보던 양궁과는 달리 국궁은 크기가 작아 화살이 제대로 나갈지 의아하기도 하다.

“자, 왼손으로 여기를 잡아봐. 오른손으로 화살을 하나 들고.”

홍민지 과장은 딸 시은이에게 화살 쏘는 법을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다. 시은이는 살짝 겁이 나지만 용기를 내서 화살을 쏘아본다. 너무 낮게 쏘았는지 과녁 근처로 가기도 전에 바닥에 화살이 꽂힌다.

“군대 가기 전에 사격 연습을 하게 됐네?”

이승진 대리와 나하나 대리가 김지섭 대리에게 장난

스럽게 물어본다. 김지섭 대리는 친누나처럼 가깝게 지내는 동료들에게 웃음을 보이곤 멋진 포즈로 화살을 쏜다. 포물선을 그리던 화살이 과녁을 맞추자 이승진 대리와 나하나 대리가 까르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웃으며 즐기는 사이 어느새 화살통에 있던 화살이 모두 바닥났다. 몇 개의 화살은 과녁에 꽂혔지만, 대부분은 과녁을 넘어가거나 과녁에 닿기 전에 바닥에 떨어졌다.

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이미 정해진 목표를 향해 주저 없이 날아가 꽃히듯, 우리의 삶도 어디쯤 왔는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쏘살같이 흘러가곤 한다. 옛 그제 입행을 한 것 같은데 어느새 입대를 앞두고 있고, 아내와 첫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뒷자리에 두 아이가 타고 있다. 우리는 삶을 잠시 멈추고 쉴 수는 없지만, 삶의 한 가운데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는 있다. 오늘의 특별한 추억도 IBK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장의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

## IBK 버킷리스트 미니인터뷰

직원들, 가족들과 함께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특히 기구는 쉽게 할 수 없는 체험이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가좌공단지점 김호진 팀장

오늘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지점이 군대 건강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섭아 면회갈게~!



가좌공단지점 홍민지 과장

가좌공단지점으로 복잡한 지한 달 정도 되었는데, 덕분에 동료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좌공단지점 나하나 대리

기구체험과 국궁체험 모두 즐거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가는 지섭아, 다치지 말고 잘 다녀와!



가좌공단지점 이승진 대리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체험이라 무척 즐거웠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준 우리 가좌공단지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좌공단지점 김지섭 대리

아내인 홍민지 과장 덕분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은이와 준우도 오늘 체험을 즐겁게 참여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경영관리부 이종표 차장



# 꽃, 설렘, 감사의 마음을 담다!

서귀포지점의  
카네이션 비누 만들기

부모님에게, 스승에게, 남편 혹은 아내에게,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날이 많은 5월이다.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하나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달이다.  
예쁜 색감과 좋은 향이 가득한 비누 선물이라면 어떨까.  
제주도 서귀포지점 직원들의 카네이션 비누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글 한울 사진 박성수





**일과 후 동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분주했던 일과를 마감하고 서귀포지점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는 말과 함께 미소를 전하는 이들의 눈빛이 봄빛처럼 따스하다. 퇴근 시간을 뒤로 하고 직원들이 테이블에 사이좋게 둘러앉았다. 오늘은 비누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는 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이라 얼굴에는 웃음꽃이 한가득이다. 오늘 이 시간은 박석순 과장의 신청으로 마련됐다.

“올 1월에 서귀포지점으로 발령받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아무도 없는 제주에 내려와야 해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주에 내려오기 전부터 서귀포지점 동료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셨어요. 정말 든든했죠. 그래서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전하고 싶었고, 서귀포지점만의 멋진 추억도 만들어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박석순 과장의 말에 직원들이 엄지를 ‘척’하고 세웠다.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서로 마주 보고 웃을 시간도 없을 때가 많다. 제주에서 서귀포시로 먼 거리를 출퇴근 해야 하는 직원들도 있기에 퇴근 후에는 집에 가기도 바쁘다. 그래서인지 직원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귀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비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준비돼 있었다. 오늘의 원데이 클래스는 녹여보기 방법으로 두 가지 종류의 카네이션 비누를 만드는 것이다. 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열로 가열해 녹인 비누베이스에 오일, 향료, 염료 등의 첨가물을 넣고 모양틀에 부어 굳히면 되는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작업이에요. 오늘 준비해온 비누베이스는 동백오일과 히알루론산이 첨가돼 있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누의 포인트가 될 카네이션은 비주얼이 예쁘고 고급스러워 완성 후에는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해볼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향과 색을 선택하다**

본격적으로 비누를 만들기 전, 먼저 비누에 들어갈 향료를 골라야 한다. 직원들은 피치 블러썸, 라벤더, 워우드, 라임바질 만다린의 네 가지 향료의 향기를 맡으며 마음에 드는 향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와~ 이 향 정말 좋은데요!”, “이건 아버지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박석순 과장의 말에 웃음이 터졌다. 기분 좋은 향기가 코끝에 전해지니 금세 힐링이 되는 느낌이다. 향에 대한 감상평을 나누는 사이, 강사는 비누베이스를 녹이기 시작했다. 고희숙 팀장은 미소를 가득 머금은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서귀포지점에 대해 소개했다.

“1년 6개월 전 서귀포지점이 인테리어를 새롭게 했어요. 아마 전국에 있는 지점들 중에서 깔끔한 곳으로는 손에 꼽힐 거예요. 또 서귀포지점은 제주도 출신 반, 육지에서 내려온 직원 반이 어우러져서 멋진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직원들은 업무는 물론 자기관리에서도 항상 최선을 지향합니다. 보디빌더, 여행 등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 덕분에 업무 이외에 다양한 화제거리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고희숙 팀장의 말에 직원들이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주미 대리는 “직원들의 성격이 동글동글해

서 뭐든지 잘 맞는다”며 고희숙 팀장의 말에 힘을 실었다. 박서연 대리는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에 항상 마음이 든든하다”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이제 염료를 결정할 차례. 레드, 핑크, 퍼플 등의 염료가 직원들 앞에 놓였다. 염료는 한 가지 색을 써도 되고, 두세 가지 색을 섞어서 개성이 있는 색을 만들어도 된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잠시 신중 모드로 전환되었다.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선택했는데, 하다 보니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만들고 싶은, 멋지게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요!”

박석순 과장의 말에 모두들 공감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향료와 색료를 고르고 나면 작업은 속도가 붙는다. 직원들은 강사의 설명에 따라 다음 작업을 이어나갔다.







**내 마음이 담긴 비누를 완성하다**

이제 비누베이스에 향료와 색료를 넣고 잘 저어준 후 모양틀에 부어줘야 한다. 비누베이스가 금방 굳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둥근 모양의 틀은 비누의 형태를, 꽃 모양의 틀은 카네이션의 형태로 완성된다. 비누베이스가 굳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설렘의 시간이다. 어떤 색으로, 어떤 모양으로 완성이 될지는 모양틀에서 떼어보아야 알 수 있다. 지점 내에 있는 냉장고의 힘을 빌려 굳기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그 사이 직원들은 자신이 만든 비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고민했다.

10여 분의 시간이 흐르고 강사가 다 굳어진 모양틀을 가지고 왔다.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모양틀에서 비누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내 감탄사가 쏟아졌다. “와~ 정말 예쁘네요!”, “색이 참 곱네요.”, “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저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나왔어요!”

완성한 비누를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서 직원들은 뿌듯한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까지 마무리했다. 직원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라며 오늘의 원데이 클래스에 흡족함을 나타냈다. 그리고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동료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을 마무리했다. 여러 개의 카네이션들이 모이자 꽃무리를 이루었다. 누군가에게 전할 고마운 마음이 정성으로 가득 피었다.



**IBK핸드메이드 참여 후기**

직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완성된 비누를 보니 예뻐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카네이션 비누가 5월에 딱 어울리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좋아해주고 즐거워져서 신청자로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쁘게 잘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 자꾸 욕심이 생기더군요. 어릴 때 미술시간으로 돌아간 듯해서 잠시 추억에 젖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제가 만든 비누를 선물하면 받는 이의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둘 있는데, 스승의 날을 맞아 어린이집의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하고 싶어졌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희숙 팀장



박석순 과장



박주미 대리

비누를 만드는 내내 많이 웃었습니다. 동료들과 다함께 비누를 만들면서 하나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누는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라 무척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이 찍히는 게 쑥스러워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비누를 만들면서 좋은 향을 맡고 아름다운 색을 보면서 힐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비누는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비누 만들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급스러운 수제 비누라 선물용으로 딱인 듯합니다. 아껴두었다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채민경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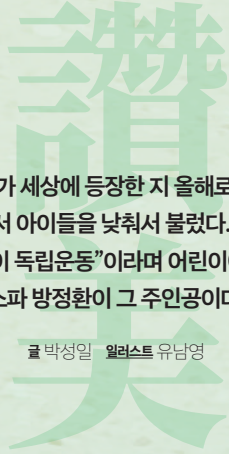
윤명선 대리



박서연 대리



# 우린 모두는 어린이였다 소파의 어린이 찬미



‘어린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등장한 지 올해로 딱 100년이 됐다. 당시에는 ‘아눔’, ‘어린것’ 하면서 아이들을 낮춰서 불렀다. 여기에 제동을 건 사람이 있다. “어린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라며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운동’을 펼친 소파 방정환이 그 주인공이다.

글 박성일 일러스트 유남영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날과 어린이에 대한 남다른 인식을 심어준 고마운 인물이다. 실제로 1918년 경성청년구락부를 조직하며 청소년운동을 전개했고, 1920년 ‘어린이 노래’를 번역하며 ‘어린이’를 ‘늙은이’, ‘젊은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등한 용어로 만든 장본인이다. 사실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과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다. 그중 어린이는 평균 수명이 짧다는 물이해로, 성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깎아내림으로, 여기에 여전히 조선을 지배한 유교이념까지 압박하며 최하층으로 평가절하했다. 방정환은 지나친 상하관념과 나이를 중시하는 유교사회의 최악자인 어린이들이 천시와 억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안타까움은 그를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했고, 학문적으로 아동심리학을 공부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어린이들이 읽을 책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사랑의 선물>이라는 외국책을 번역하는가 하면, 1923년에는 소년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 최초 순수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기도 했다. 어린이 단체 ‘색동회’를 조직, 5월 1일 서울 시내 소년단체들의 연합조직인 ‘조선소년운동 협회’ 주최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등 소년운동을 주도했다.

‘하늘 같은 어린이를 위해 평생을 바치리라’ 하고 생각한 방정환은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운동’을 펼치는 등 ‘작은 물결, 소파(小波)’로서의 굼직한 행보를 이어갔다. “무기를 만들고 싸우는 것만이 독립운동이 아니고 어린이를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라는 신념은 그를 끊임없이 강연회와 동화대회 그리고 어린이의 지위를 높이는 일에 전념케 했다. 한평생 어린이를 위해 살다 간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사랑과 깊은 뜻에 절로 찬탄과 존경의 마음이 솟아오른다.





# 응답하라 K-전통주 젊어진 전통주에 반하다



‘아저씨 술’, ‘파전’ 등 아재들이나 마시는 고리타분한 술이 아닌 쿨하고 트렌디한 술로 환골탈태하며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전통주. 21세기형 주막인 하우스 제조장의 등장과 동서양의 요리와 어울리는 페어링은 하나의 유니크한 주류문화를 안착시키며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새로운 소비라이프의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글 편집실



## 주류(主流)로 떠오르는 전통주 MZ세대 취향 맞춤 주류

MZ세대를 중심으로 **취하기보다 술 자체를 즐기는 음주문화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전통주가 단순한 주류(酒類)가 아닌 주류(主流)로 떠오르고 있다.** 판매량도 우상향을 가리키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마켓컬리의 경우, 올해 연초 이후 전통주 카테고리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배 증가했다. 전통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취급 상품 수가 분기마다 3배씩 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17년부터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통주 시장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한 2017년에는 400억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2020년엔 627억 원으로 3년 만에 1.5배 성장했다. 9조 원 규모인 국내 전체 주류 시장에 비해 작은 비중이지만, 신규 시장인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한목소리다.

편의점 CU와 전통주 플랫폼 ‘대동여주도’의 협업, GS리테일의 ‘막쿠르트’ 단독판매, 국순당의 ‘생막걸리 팝업스토어’ 오픈, 백술도가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막걸리 ‘백걸리’, ‘임창정미숫가루 꿀막걸리’, 허니버터아몬드의 달콤함과 고소함이 살아있는 ‘바프허니버터아몬드 막걸리’, 설빙의 웰빙빙수와 콜라보한 ‘설빙 흑임자순희’ 막걸리 등 **클라보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MZ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큐레이팅과 스토리텔링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찾아오는 전통주

전통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쇼핑몰 ‘전통주 술마켓’,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술담화’, 전통주 온라인 구매 플랫폼 ‘우리술상회’ 등 ‘D2C(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을 강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 술담화의 담화박스는 전국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4도에서 53도의 전통주 중 한 달에 한 번 전통주 소믈리에가 엄선한 전통주 2~4종을 전달한다. 이때 전통주는 큐레이션 카드와 같이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각 술에 대해 소믈리에가 전해주는 스토리텔링, 단맛 등을 표시한 향미 그래프, 안주 페어링 등이 친절하게 쓰여있다.**

조선 3대 명주로 꼽히는 죽령고, 양대수 식품명인의 추성주, 2020년 청와대 선물로 선정된 대일술까지 우리에게 흔하지 않은 전통주로 가득한 우리술상회도 소비자의 니즈를 파고들고 있다. 특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전통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답게 전국팔도 지역별 대표술이라는 라인업이 화려하다.

내게 맞는 전통주를 시가 추천해주는 전통주 소믈리에 플랫폼 ‘매월매주’는 시와 전통주 전문 큐레이터가 나서 소비자 취향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전통주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바야흐로 전통주 전성시대다. 와인에 대해 잘 모를 때 소믈리에를 찾듯, 내게 맞는 전통주가 편하게 집 앞으로 배달되고, 시가 추천해 주는 시대다. **큐레이션에 한 번 감동하고, 스토리텔링에 두 번 감동하게 된다. 양질의 맛과 향은 덤이다.**



MZ세대를 사로잡다  
한식 말김치림과 전통주 페어링

외식업계에서도 **일식 오마카세에 이어 ‘한식 말김치림과 전통주 페어링’이 대세다.** 지평주조는 지난해 8월 전통주에 한식 오마카세를 곁들인 레스토랑 ‘푼주’를 열었다. 고급화된 한국 술 문화 플랫폼인 푼주는 김세진 셰프와 협업해 한식 말김치림을 개발하며 코스요리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성급 호텔인 인천 네스트호텔도 올해 5~8월 성수기에 전통주 페어링을 곁들인 다이닝을 계획 중이다.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집밥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도’ 전통주 전문관 ‘더주막’을 오픈하며 전통주 페어링의 온라인 판매 서비스에 합류했다. 500여 가지 가정간편식(HMR) 가운데 ‘광주별미소고기육전’, ‘들깨버섯전골’ 등 전통주와 어울리는 대표요리를 선별해 페어링 안주 세트 8종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듯 전통주 페어링의 인기는 네이버 검색어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키워드 ‘전통주 페어링’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검색어 지수는 2021년 3월에는 9점, 같은 해 10월에는 63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7월에는 100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는 **와인과 위스키를 거치며 개인 취향을 찾기 시작한 소비자가 이제는 전통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나만 아는 술’을 찾아 나선 MZ세대가 미개척 영역인 전통주의 매력에 빠지면서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기업의 마중물이 되고  
직원들의 소통과 배려를 통해  
명품지점으로 나아가다

## 충주지점

충주지점은 고객을 위해 대한민국 중심 충주에서 60년간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망 기업 발굴과 직원들의 소통과 배려를 통해 건설한 지점으로 성장을 이뤄낸  
충주지점은 오늘도 맑음으로 가득하다.

글 김이래 사진 이대원 영상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Develop



## 충주의 중심 마중물이 되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주에 유일하게 자리 잡은 충주지점은 개점한 지 벌써 60년이 지난 충주의 대표 은행으로 60년간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점 반경 32km 내에 다른 지점이 없다 보니 주변에 있는 중원산단, 첨단산단 등 10개의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모두 충주지점의 고객이다. 최근에는 바이오헬스 국가 산단 등 신규 산업단지들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등 충주지점의 중요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충주시민들에게도 충주지점은 빼놓을 수 없는 장소다.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며 신규 회원 유치 및 기존 고객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나 후원 등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며 충주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주지점의 여신거래 주요 업종으로는 자동차 부품 및 화학제품 제조, 금속가공, 식품제조업 등이 있으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이차전지 관련 업종의 생산설비 증설 및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며 기업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 충주지점은 2023년 상반기 여수신계수 1조 원을 돌파하며 큰 성장을 이뤄냈다.

충주지점은 60년간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망 기업 발굴을 통해  
건설한 성장을 이룬다**

총주지점은 두 가지 업무에 특히 주력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성장이 유망한 미래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차전지 관련업종 영위 기업에 타 은행 대비 경쟁력 있는 신상품을 소개하고 저리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고 여수신 계수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었다. 총주지점은 앞으로도 총주의 많은 미래 기업에 지원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중소기업 맞춤형 상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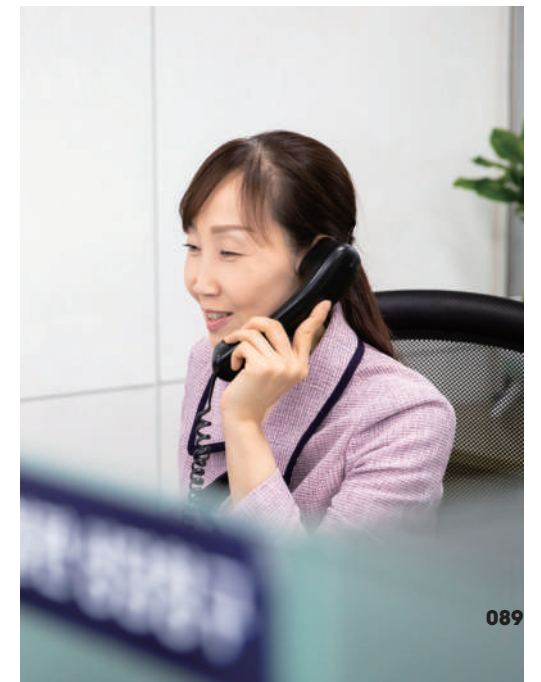
두 번째 주력 업무는 건전성 관리를 바탕으로 건설한 지점의 성장을 이루는 것과 개인 및 기업 자산 관리 업무 집중을 통해 수신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다. 우량여신의 증대와 비우량여신의 적절한 관리, 축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불리는 '3고'로 인한 경기하강 상황에서도 지점 연체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건전성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900억 원 이상의 수신고 순증을 기록하는 등 건설한 지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종창 지점장은 "2022년 상·하반기 거액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하반기, 연간 모두 우수점포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우량 거래업체 중기 대출을 획기적으

# Excavate

로 순증시키며 A-구간 중기대출잔액 420억 원 순증(1,154%, 3월 말 기준, 관내/그룹 1위), 기술금융 금액 380억 원 순증(3,353.8%, 3월 말 기준, 관내/그룹 1위)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전년 대비 수신 규모가 900억 순증(약 16.5% 증가)하며 총수신 규모 지역본부 내 2위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총주지점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노력은 총주지점의 성장으로도 이어졌다.





### 소통과 배려로 근무하고 싶은 지점을 만들어요

충주지점 직원들의 서로 간의 소통은 업무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직원들은 딱딱하고 지루한 전체 회의에서 벗어나 팀별 미팅, 짧은 스탠딩 회의 등을 통해 능동적인 업무 파악이 가능해졌다. 특히 중점 추진업무의 경우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업무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또한 상호 간의 배려를 통해 노력을 인정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정 직원이 바쁠 때는 다른 팀이라도 대신 전화를 받아 응대하고, 급여 이체나 초저금리 비대면 연장, 신규 기업 카드 관련 업무 등 손이 닿을 수 있는 업무를 센스있게 처리해준다. 도움을 받은 직원 역시 다른 도움의 손길을 뻗으며 감사를 표했고 서로가 아끼는 충주지점을 만들었다.

“저희 지점은 지점장님이 먼저 나서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저희 지점장님은 직무에 도움 될 수 있는 연수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 함께 살펴보라며 먼저 권해주십니다. 연수 중에서 일부는 업무시간 중에 진행되는 것도 있어서 혼자 듣기엔 눈치가 보일 수 있는데, 지점장님의 권유로 다 함께 듣는 분위기가 형성되니 듣고 싶은 연수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숙 부지점장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에 부뒳해하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좋은 연수,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고 얘기한다. 충주연수원과 가까워 언제나 쉽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 Mini Interview



충주지점은 앞으로도 여수신 거래 고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 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우수지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점과 직원, 고객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다. 충주지점의 모든 직원이 한층 더 성장하고 지금처럼 소통하는 지점으로 융화되어 모두가 근무하고 싶어 하는 명품 지점이 되기를 응원한다.

#### 충주의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충주지점은 과거에 격지 열악 점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어려웠던 지점입니다. 최근에는 충주지역의 산업 성장과 더불어 실적을 개선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다 보니 직원들의 역량 또한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앞으로도 꾸준히 살려 충주지점을 누구나 근무해 보고 싶은 최고의 명품지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들의 건강, 행복, 발전을 위한 충주지점의 버팀목이 되어서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 정감넘치는 충주에서 함께 해요

충주는 볼거리도 많고 산과 물이 좋은 정감넘치는 도시입니다. 이런 충주지역에는 단금대, 충주호 같은 매력적인 관광지나 송어, 사과 등 특색있는 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충주연수원도 가까워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무럭무럭 성장하는 충주지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총주지점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으로  
표현한다면?

이종창 지점장



김정은 대리



고애나 대리



윤지희 대리



김윤섭 부지점장



박현숙 부지점장



권윤주 과장



도혜연 대리



오수영 대리



김동민 대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충주

이주연 과장



오슬기 과장



이정경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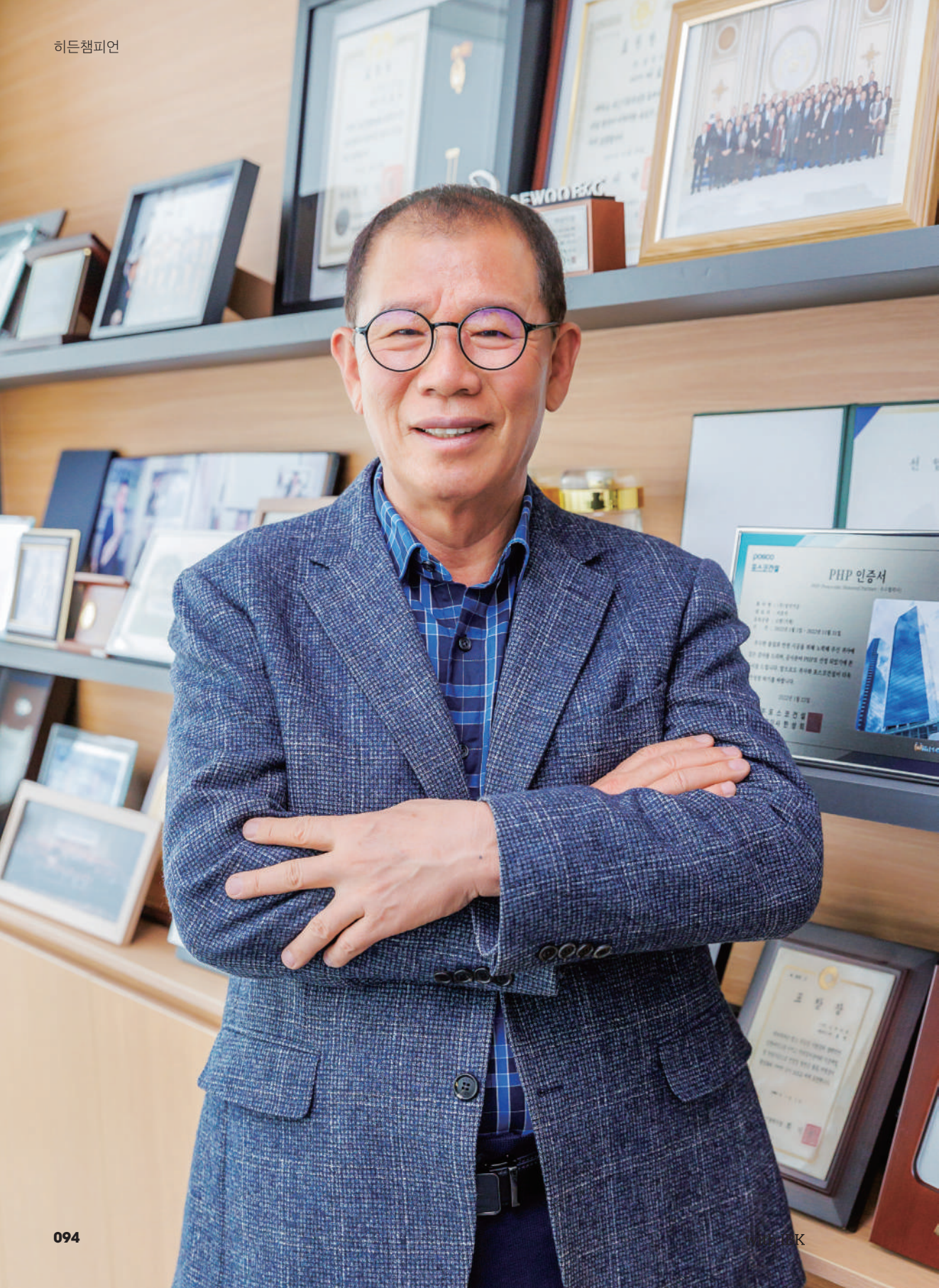
김재득 경비원



# 고맙습니다







##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탱크의 선두 주자가 되다

(주)성지기공  
이호석 대표



송도테크노파크지점 거래 기업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물탱크 산업에서 한발 앞선 연구와 개발을 해내며 높은 품질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 물탱크만큼이나 오래도록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공을 일궈낸 성지기공의 웃음소리는 멈출 줄을 모른다.

글 김이래 사진 김세명







PDF저수조 시공 모습

**끊임없는 탐구로 한 걸음 더**

성지기공은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 끝에 물탱크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1985년 4월 법인 전환을 시작으로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물탱크 제조에 온 힘을 쏟아온 이호석 대표는 물탱크 산업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온 산증인이다. PDF 물탱크, 볼트 조립식 탱크 등 자체 기술개발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이호석 대표에게 최초라는 타이틀은 익숙하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물탱크가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테인리스나, SMC 같은 재질로 물탱크를 만들었는데 이런 재질들은 문제점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DF를 주된 재질로 물탱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최초로 용접해서 설치하는 물탱크가 아닌 볼트 조립식 탱크를 개발해 특허까지 냈습니다.”

물류창고 등에 물탱크를 설치하다 보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이 용접 불빛에 의한 화재 사고다. 그러다 보니 물탱크 설치를 위해 용접할 때는 항상 소화기와 안전요원을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호석 대표는 안전하면서도 빠르고 간편한 방식이 없을지 고민을 거듭했고 그 결과가 바로 볼트 조립식 탱크였다. 작년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난 물량을 설치할 정도로 성지기공의 새로운 탱크는 높은 수요를 보여줬다.

이호석 대표는 남들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특화 기술에 관한 생각을 꾸준히 해왔다.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실험, 적극적인 R&D 투자 등을 통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지기공은 계속해서 한걸음 앞서나가는 기술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볼트 조립식 탱크보다 더 앞선 제품도 벌써 개발해놓았다는 이호석 대표는 끊임 없는 탐구 정신과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지금의 성지기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끈기와 기다림으로 쌓은 신뢰**

특화된 기술을 통해 물탱크 산업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성지기공이지만 처음에는 부도를 맞을 정도로 큰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특화 기술을 통한 매출 방향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화를 이뤄냈다.

“뼈아픈 실패의 경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출 방향을 만들어 냈고 원가를 낮추는 것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노하우들은 제품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기 전부터 꾸준히 거래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거래기업과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물탱크는 특성상 오랜 기간을 지켜보고 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점검해야 해서 한 번에 큰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떤 경우에는 물탱크가 변형되는지,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년이 넘는 테스트를 거치기도 한다. 성지기공 역시 이런 물탱크처럼 오랜 시간을 쌓아오며 천천히 성장을

이뤄냈다. 신뢰와 더불어 끈기와 기다림은 성장을 위한 필수 덕목이다.

“물탱크 기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탱크가 물에 오래도록 담아두는 것처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한번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물탱크에 담긴 물처럼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성지기공도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 받은 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통해 많은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지기공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전년도 매출액 560억을 기록했고, 올해는 매출액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물탱크를 만들고 설치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이 성지기공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 사이 이호석 대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장을 3년 동안 맡았고, 최근에는 물탱크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어느새 두 아들까지 생산공장을 직접 찾아 관리하고 영업과 관리 업무를 배우며 함께 성지기공의 일을 돕고 있다. 차근차근 성지기공의 일원이 되어가고



이호석 대표는 볼트 조립식 물탱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조립하고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있는 두 아들에게 이호석 대표는 자신이 겪은 시행 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항상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다행히 두 아들 모두 많은 사람과 신뢰를 쌓아오며 성지기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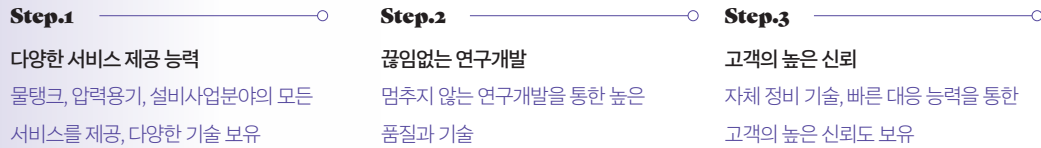
**해외 진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

이호석 대표는 최근에는 화학 공장이나 산업단지에서 많이 사용하던 플랜트 탱크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건축용 물탱크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용 물탱크는 물탱크의 위치가 옥상이나 지하에 있더라도 똑같은 수압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조립식 물탱크를 이용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고민도 이어오고 있다.

“수출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물탱크의 경우 조립 기술을 알고 있는 분이 직접 조립 상태를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데 저희 직원이 매번 해외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1M 면적마다 나눠서 수출이 가능한 SMC 탱크를 위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호석 대표는 볼트 조립식 물탱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조립하고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의 설치팀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해외 현지인들이 직접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해외 시장 진출의 큰 활로를 열 계획이다. 성지기공은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끈기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물탱크 산업의 선두 주자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주)성지기공의 특징**



고성재 지점장, 정성수 인천지역 본부장, 이호석 대표

**Mini Interview**

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IBK기업은행**

**Q. 대표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초심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초심을 저는 꾸준히 묵묵하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나 자금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품질과 성능의 제품도 중요하지만 이런 초심을 유지해 나간 것이 지금의 성지기공을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들도 이런 저의 철학을 잘 알고 지켜나가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기업은행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IBK기업은행과 오랜 세월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저희 성지기공이 성장하는 데 IBK기업은행은 동반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IBK기업은행과 꾸준히 관계를 이어오면서 언제든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경영 철학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IBK기업은행 덕분에 위기 상황이나 새로운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과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성지기공 이호석 대표



**Mini Interview**

②

**사람 냄새 나는 성지기공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Q. <with IBK> 독자들을 위해 송도테크노파크지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IBK 송도테크노파크지점은 첨단 산업 업종의 메카로서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이 80여 개 입점해있는 전략적 산업 요충지입니다. 저희 지점은 소통과 단합으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며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고 최근 5개년 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튼튼한 은행, 반듯한 금융을 위해 도약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성지기공의 비전을 어떻게 보시나요?**

A. 성지기공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50년간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국내의 대표기업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CEO의 경영 철학이 회사의 핵심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력과 함께 근로자 임금인상, 성과 상여금제도 등 근로자 복지향상 제도를 도입하여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가득 풍기는 인간미 넘치는 기업 '성지기공'의 내일을 IBK가 함께 응원하고 동반자로서 지원하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지점 고성재 지점장





# 성공의 미래를 앞둔



## IBK항공 기업

### IBK항공 마포

새로운 BNPL 혁신과  
확장

# LICHE

(주)리체

서비스 및 솔루션 토탈 생태계를 확보한 리체는 BNPL 서비스와 플랫폼, 핀테크 솔루션을 모두 내재화하고 비즈니스 난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큰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liche.co.kr

### IBK항공 구로

나만의 세특 선생님  
학종 AI

# JOBSHOPPER

(주)잡쇼퍼

AI 기반 학원용 교육 SaaS 학종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서비스로 론칭 3개월 만에 가입원 100호점을 돌파하는 등 교육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hakzong.com

### IBK항공 부산

피부 고민별  
맞춤 솔루션

# POWERPLAYER

(주)파워플레이어

2019년 설립된 파워플레이어는 'Natural Clean Beauty' 화장품 회사로 국내 16개 주요 쇼핑몰과 일본, 대만, 러시아 등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powerplay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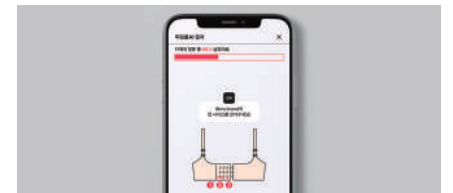
### IBK항공 대전

편안함 그 이상의  
심리스

# Anti(GMm/r<sup>2</sup>)

(주)안티그래비티

AI 기반 부피 제도를 통해 기존의 낡은 사이즈 측정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사이즈 제도를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증명하고 있다.



antigravity.kr



IBK항공 마포

핵심인력 역량과  
핀테크 기술력 혁신

LICHE

㈜리체는 BNPL을 위한 서비스와 솔루션 토털 생태계를 보유하며 혁신의 성장을 입증하고 있다. B2C BNPL 커머스 ‘로마드’는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BNPL 커머스로 론칭 2년여 만에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BNPL 커머스로 자리매김했다. 고가제품임에도 재구매율이 높은 신뢰 높은 커머스다. B2B BNPL 플랫폼 ‘후페이’는 BNPL을 원하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을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이다. 판매자가 별도의 시스템 구축없이 간편하게 BNPL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BNPL Payment SaaS ‘레이터포스’는 커머스에 BNPL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계약, 정기결제, 채권유동화, 리스크관리를 지원하는 IT와 금융 인프라 서비스다. 이를 통해 리체는 아시아 넘버원 BNPL 핀테크 솔루션 기업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IBK항공 구로

전공·계열 맞춤형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



AI 기반 학원용 교육 SaaS 학종은 진로 맞춤형 데이터 제작 CMS인 Lean AI와 개인 맞춤형 세특교육 LMS인 학종프로로 구성된 학원용 SaaS다. 데이터 전처리와 맞춤형 진로 교육 AI를 5년 넘게 연구해온 성과는 물론 국내 최고 수준의 진로교육 AI 기술과 역량을 집약한 서비스다. 기존 학원 선생님들이 학종을 활용한 세특 수업 개설 등으로 시험 대비 학원에서 하이엔드 컨설팅 수준의 맞춤형 세특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학종(안정적인 Sales Channel 확보), 학원(원생 이탈 방어), 학생(효율적인 대입준비)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와 설계**다. 4차례의 MVP 테스트를 통한 시장검증과 4차에 걸친 수작업 PoC를 통해 PMF 검증 및 AI 자동화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며 후속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는 청사진이다.



IBK항공 부산

오랜 시간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착한 소비



㈜파워플레이어는 2020년 온그리디언츠 출시 이후 **1년 만에 946%의 매출증가율을 보이는 등 과도한 경쟁의 K뷰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온그리디언츠는 자연이 주는 순한 성분과 불필요한 화학 성분을 제외한 진정성 있는 성분으로 피부 고민별 맞춤 솔루션을 연구한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지구가 더 이상 상처받고 다치지 않도록 자연에도 유해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수출국가만 10개국, 제품수 24SKU, 연간누적판매량도 394,324개에 달한다. 디즈니 코리리와 온그리디언츠 콜라보레이션은 물론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내 ‘온그리월드’ 오픈, SNS 체험단 및 인플루언스 시딩 진행 등 고객군을 확장하며 아시아, 유럽, 인도, 미국, 중동 등 글로벌 진출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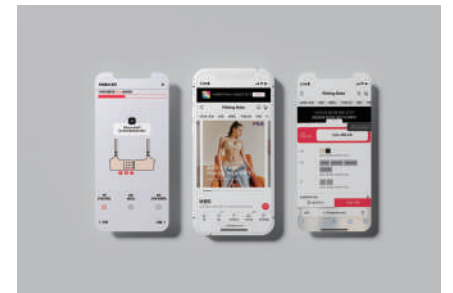


IBK항공 대전

부피기반 사이즈 추천  
알고리즘



㈜안티그래비티는 의류 사이즈 정확도 및 알고리즘의 명가다. 제조부터 알고리즘 서비스까지 3D 측정 및 분석을 통한 시장의 가설을 충분히 검증하며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쉽고 정확한 새로운 부피기반 사이즈 제도 구축은 물론 예외 변수를 없앤 표준을 제시하고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그중 아나콘다 이너웨어는 안티그래비티 PB 브랜드의 탄생을 알린 신호탄. 2번째 브랜드 헤즈소울도 원단의 기술성을 내 몸에 딱 맞출 수 있게 진보된 기술노하우를 장착했다. 향후 안티그래비티는 입점브랜드 확보, 알고리즘의 진화,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니즈를 반영한 하이브리드 자사물 솔루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국내 안테나 시장 검증 후 글로벌 안착이라는 3개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Q&A로 알아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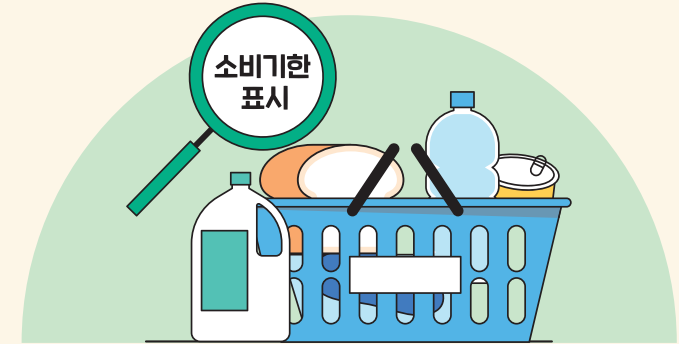
#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은 판매가능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섭취가능기간이다. 전자는 식품위생을 위해 1985년 도입됐고, 후자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난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글 편집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반가워요 소비기한



###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품질유지기한은 식품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으로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을 말한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이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조건과 실험 등을 거쳐 설정하게 된다.

### 소비기한으로 변경한 이유

유통기한은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을 겪어 왔다. 이에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 변화,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도입하게 됐다.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도 될까?



###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대부분의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된다. 단, 제조연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 식초 등)은 표시 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 기존 포장지 사용 가능 여부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3. 1. 1~12. 31)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따라서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소비기한 도입 시 주의할 점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식품 등 보관방법·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해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 유통기한 지난 식품 섭취 여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식품 폐기 연간 약 1조 원



###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 표시기준을 위반해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1차 7일, 2차 15일, 3차는 1개월간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는 영업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 식품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각 단계별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자(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재의 유통기한과 동일하다.

### 소비기한 도입의 기대효과

제외국과의 표시기준 일원화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혼란스러움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과 탄소중립 실현도 기대된다.

### 소비기한 2~3배로 늘어날까?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0.7을, 소비기한은 0.8~0.9의 사잇값을 안전계수로 곱해 보정하게 된다.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 고마움을 담은 청첩장에도 올바른 우리말과 함께

청첩장은 가까운 친지나 친구 등을 결혼식에 초대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일반적으로 청첩장에는 결혼식장에 오는 길과 차편 등을 기록하며, 결혼 당사자의 이름을 명기한다. 또한 청첩장에는 결혼식 참석에 대한 감사의 글을 함께 기록하기도 한다. 그러니 올바른 우리말로 반듯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글 편집실 **윤천** 국립국어원

오래 전부터 열열히 사랑한 저희가  
 비로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서로 아끼고 이쁘게 살겠습니다.  
 작은 것도 소홀이 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축의금 보다는 축복하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2023년 5월

축하해요~

잘 살게요~

**오래 전부터** ↓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과거'라는 뜻을 나타내는 '오래전'은 한 단어이며, 그 뒤에 조사 '부터'가 붙으면, '오래전부터'와 같이 붙여쓰기합니다. '오래전의 일을 기억하다', '웅보의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막음례와 웅보 사이를 알고 있었다'와 같이 씁니다.

**열열히** ↓ **열렬히** '한글 맞춤법' 제13항에서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가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의 본음이 '렬'이고 발음 또한 '열렬'이므로, 두음 법칙에 따라 '열열'이 아닌 '열렬'로 적습니다.

**비로서** ↓ **비로소** '비로소'는 '비롯하다'의 옛말인 '비롯'에 부사형 접미사 '오'가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현재는 이 부사형 접미사 '오'가 쓰이지 않지만 그렇게 결합된 형태가 현재까지 전해 내려와 '비로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쁘게** ↓ **이쁘게** '이쁘게'와 '예쁘게'는 둘 다 맞습니다. 사실 '예쁘다'는 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표준어이지만 '이쁘다'는 2015년 전까지 표준어가 아니었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복수 표준어로 인정받아 '예쁘다'와 '이쁘다'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홀이** ↓ **소홀히** '정성을 다하지 않거나 조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뜻의 '소홀히'는 부사입니다. 한글맞춤법 제6장 제51항은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하게 '이'로 발음 나면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날 수 있는 경우는 '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의금 보다는** ↓ **축의금보다는** '보다'가 부사일 때는 '한층 더'라는 뜻으로 다른 말에 붙여 쓰지 않고 띄어 써야 합니다. 조사일 때는 '~에 비해서'라는 뜻으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여 사용됩니다. 이때는 띄어쓰기 없이 붙여 써야 합니다.



# 취임 100일 기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기자간담회



## 취임 100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

4월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며 IBK의 미래상을 밝혔다. 이날 "보다 가치 있는 금융을 실현하는 IBK기업은행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튼튼한 은행, 반듯한 금융, 활기찬 조직' 등 세 가지 전략방향을 소개했다.

### 시장선도·자체경쟁력 튼튼한 은행

김성태 은행장은 '튼튼한 은행' 실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선도를 통한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기술기업의 성장금융경로를 빈틈 없이 완성하겠다"며 "과감하게 '모험자본'을 지원해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돕고, '중소기업 전용 M&A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주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거나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성숙기 기술기업의 소멸을 방지하고 재도약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산업과 혁신제조기업 육성의 금융혈류에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기술 혁신기업 1천 개'를 발굴해 투·융자 복합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5대 전략분야와 저탄소 전환기업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유망 제조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자산포드폴리오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청사진이다. ESG경영과 디지털전환을 돕는 튼튼한 디딤돌 역할에도 충실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김성태 은행장은 "2025년까지 글로벌 부문 이익 2배 확대, 자회사 부문 이익 비중 15% 확대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며 "IBK BOX' 플랫폼을 지렛대로 비금융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고객 신뢰 최우선의 반듯한 금융

반듯한 금융의 핵심방향은 빈틈없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있다. 김성태 은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상품, 서비스는 물론 제도와 KPI 등 경영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금융사고를 없애기 위해 사람·절차·기술의 '입체적 내부통제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파급영향을 종합 감안해 '최적의 내부통제체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데이터센터 대비 3배 규모의 'IBK하남데이터센터'를 오는 2025년 중에 오픈하고,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향상 등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이라며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새 희망씨' 대출 등 서민금융 취급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자 가계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포용력을 높이는 상생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자체적인 '탄소중립 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인재 지원 등 ESG 모범경영 실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직원 수용성 높이는 활기찬 조직

활기찬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직원이 소신을 갖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인사·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김성태 은행장은 "새로운 인사혁신TF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답정너'식의 상의하달이 아닌, 제도 수립 과정에서 직원들의 참여는 물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부문별 권한 개편을 검토하고, 3개년 조직개편 로드맵 수립 등 조직혁신에도 더욱 매진해 행복한 일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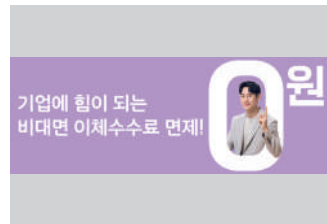
김성태 은행장은 "정부, 정책금융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고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모든 기업고객 대상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IBK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이번 정책은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 및 中企  
2,000억 규모 금융 지원**

IBK기업은행은 산불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최근 충남 홍성, 대전 서구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최대 3억 원)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대출 만기도 연장해 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크콘서트 공감IBK’ 진행  
‘행복한 삶’을 주제로!**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이 영업현장방문,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등 현장소통에 이어 지난 4월 7일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직원 30여 명과 함께 ‘토크콘서트, 공감IBK’ 시간을 가졌다. 이번 콘서트는 김성태 은행장이 업무적인 주제를 벗어나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삶’을 주제로 90여 분 동안 진행됐다. 김 은행장은 “행복은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직장에서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직원은 “행복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에 화답했다.



**사장님, ‘IBK기업카드 이용해  
보시고, 주유권 받아 가세요’**

IBK기업은행은 원자재값·공공요금·인건비 상승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사장님~ IBK기업카드 이용해 보시고, 주유권 받아 가세요’ 이벤트를 진행했다. 대상은 ‘B-Point’ 기업 신용카드(마스터브랜드 한정)를 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규발급한 개인사업자로, BC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에서 응모 후 1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7만 원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i-ONE BANK 앱(App)이나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출시**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임직원 전용 상품인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을 출시했다.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은 파킹통장 기능,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혜택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임직원의 자산형성을 돕는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22.10월 출시)과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패키지 상품이다. 이 통장은 전월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당월 잔액 300만 원까지 연 3%의 금리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점이 눈에 띄며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1인 1계좌이며, i-ONE Bank(개인) 및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IBK-기보, 중기 기술거래·  
보호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거래·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보호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규 기술개발’ 대비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기술 이전 및 양산자금’ 필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기업은행은 협약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에 총 50억 원을 특별출연해 저리의 100%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장기·저리 보증 지원 ▲경영정상화 보증 지원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보증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할 예정이다.





# 이달의 N행시

이달의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만들어보세요.  
우수작으로 뽑히신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5월의 단어**  
**오늘도 고마워!**

‘오늘도 고마워!’ 중 ‘워’는 ‘어’로도 허용이 됩니다.  
위의 주어진 6개 글자를 모두 사용해서 멋진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N행시 예시** \*위 N행시는 예시로 작성한 것입니다.

오 오늘도 내일도	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늘 늘 당신의	마 마음에 품습니다.
도 도움을 생각하며	워 어머니, 고맙습니다.

## N행시 이벤트 참여하기

**N행시를 지으셨다면 QR코드나 엽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엽서는 31일까지 도착)  
**참여 방법** 오른쪽 QR코드로 로그인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6월 15일 이내



<h3>N행시 이벤트 당첨자 발표!</h3> 	<p><b>관참으시다면</b> 차 한 잔 어때요? 나, 당신이 정말 좋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래요? 변대한 직장도 생겼으니 더욱 잘할게요. 당신께^^</p> <p style="text-align: right;">- 정ㅇ -</p>	<p><b>관참이요!</b> 차 타고 드라이브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한번 시는 인생!! 번개 같은 시간!!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말고 즐기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윤ㅇ희 -</p>
<p><b>관사리</b> 상승생송할 땐 차분하게 신호흡하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b>환</b>적인 장소에 있다면 더 좋겠조? <b>번</b>잡한 곳을 벗어나 내게 온전히 집중해보면 더없이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백ㅇ재 -</p>	<p><b>관참아</b> 차이 나면 어때 나는 더 잘할 거라고 믿어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번번이 실패하면 어때 더 잘하기 위한 연습인걸</p> <p style="text-align: right;">- 김ㅇ신 -</p>	<p><b>관한</b> 고집 피우지 마 차 한잔하자니까? 나와 너 절친이잖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번번이 바쁘다고 시간을 안 내니 더는 그러지 마 보고 싶다. 친구야</p> <p style="text-align: right;">- 박ㅇ -</p>



# 이달의 인증샷

<with IBK> 5월호에 소개된 맛집과 여행지를 직접 방문해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 [5월호에 소개된 곳]

38p IBK맛집노트 제주도 맛집	44p 발길 닿는 길 세조길	56p IBK산 비슬산	66p IBK버킷리스트 열기구·국궁 체험
--------------------------	-----------------------	--------------------	------------------------------

## 인증샷 이벤트 참여하기

인증샷을 찍었다면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참여 방법: 아래 QR코드로 사진 전송

당첨자 발표: 6월 15일 이내



# with IBK # IBK맛집노트

# 발길 닿는 길 # IBK산 # IBK버킷리스트



뒷면에  
전국 드라이브 코스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건  
긍정적인 정서라고 해요.  
이는 곧 도파민 분비와 연결되고,  
우리 뇌의 전전두피질에 전달되며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고마워!’  
이 한마디가 불러올 기분 좋은 변화  
바로 소통의 비밀이 아닐까요.

더 끈끈해지고 돈독해진 말,

**오늘도 고마워!**





#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누군가는 기업에서

꿈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기쁘게도 합니다.

기쁨이든 실패에 울고,

보람듯 웃으며 이겨내고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다는 건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